

2022년 아주대학교

재학생 인권/성익식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2022.08.





머릿말

제 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3
2. 연구설계	3
3. 분석대상	3
4. 연구도구	5
5. 분석방법	5

제 2장 연구결과

1.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9
1)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9
2)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	11
3)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12
4)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13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15
6)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17
7)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18
8)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20
2. 인권 및 성평등 인식	23
1)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3
2) 학내 인권침해 우려 사례에 대한 인식조사	29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39
4) 성폭력에 대한 인식	43

2022년 아주대학교
재학생 인권/성익식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3. 인권침해 실태	46
1) 학교생활 중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46
2) 인권 침해 실태 및 대처	60
4. 성희롱/성폭력 실태	70
1)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	70
2)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71
3)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73
4)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74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82

제 3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87
2. 제언	91

제 4장 부록

- 재학생 인권/성익식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95
--------------------------------	----

표 목차

[표 1] 연구설계.....	3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4
[표 3]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9
[표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10
[표 5]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	11
[표 6]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12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	13
[표 8]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13
[표 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받은 경험 ..	15
[표 10]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15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17
[표 12]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18
[표 13]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19
[표 1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20
[표 15]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21
[표 1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22
[표 17]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
[표 18]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25
[표 1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26
[표 20]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27
[표 2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28
[표 22]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29
[표 2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30
[표 24]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31
[표 2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32

표 목차

[표 26]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33
[표 2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34
[표 28]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35
[표 2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36
[표 30]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37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38
[표 32]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39
[표 3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40
[표 34] 성관계 시 주도자에 대한 인식	41
[표 3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관계 시 주도자	42
[표 36] 성폭력에 대한 인식	43
[표 3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	45
[표 38]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46
[표 3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47
[표 40]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 침해 내용	48
[표 41]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49
[표 4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50
[표 43]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내용	51
[표 44]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51
[표 4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53
[표 46]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내용	54
[표 47]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55
[표 48]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56
[표 49]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	57
[표 50]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57
[표 5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59
[표 52]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60
[표 53]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60

표 목차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62
[표 5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63
[표 5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64
[표 5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시 대응 방법	65
[표 58]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	66
[표 5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67
[표 60]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68
[표 6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69
[표 62]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내용 중 중요한 이슈	70
[표 63]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72
[표 64]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73
[표 65]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74
[표 6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75
[표 67] 성희롱/성폭력 유형	76
[표 68]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77
[표 69] 성희롱/성폭력 장소	78
[표 70]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	79
[표 7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80
[표 72]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81
[표 7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82
[표 7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83

그림 목차

[그림 1]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9
[그림 2]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 경로	11
[그림 3]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12
[그림 4]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14
[그림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16
[그림 6]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18
[그림 7]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19
[그림 8]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21
[그림 9]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
[그림 10]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29
[그림 11]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31
[그림 12]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33
[그림 13]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35
[그림 14]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37
[그림 15]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39
[그림 16] 성관계 시 주도자에 대한 인식	41
[그림 17] 성폭력에 대한 인식	44
[그림 18]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46
[그림 19]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 침해 내용	48
[그림 20]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49
[그림 21]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내용	51
[그림 22]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52
[그림 23]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내용	54
[그림 24]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55
[그림 25]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	57
[그림 26]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58
[그림 27]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60

그림 목차

[그림 28]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61
[그림 2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63
[그림 30]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시 대응 방법	65
[그림 31]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	66
[그림 3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67
[그림 33]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68
[그림 34]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내용 중 중요한 이슈	71
[그림 35]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72
[그림 36]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73
[그림 37]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74
[그림 38] 성희롱/성폭력 유형	76
[그림 39]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77
[그림 40] 성희롱/성폭력 장소	78
[그림 4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	79
[그림 42]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시 대처 방법	80
[그림 43]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81
[그림 4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82



양승국*, 김혜승**

대학의 인권센터에서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성의식 수준을 이해함과 동시에 교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학생들의 성인지각수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시점에서 재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 양상과 고충 사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분석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서는 2022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인권 및 성평등에 관한 의식과 태도,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교내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존에 성평등상담소에서 실시하던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을 수정·보완하여 재학생들의 인권 및 성의식과 인권 및 성폭력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존의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위주의 조사 문항에 인권과 관련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통합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과 성의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인권센터 차원에서 시기적·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성평등 이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의 문항에는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설치 여부 및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 향후 이용 의사, 인권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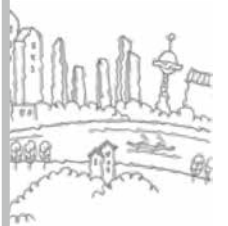
이번 조사 및 연구는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협업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교 재학생 대상의 실태 조사로 조사 결과의 분석자료는 교내 구성원에게 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캠페인과 특강 등의 주제를 선정하는 등의 인권센터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전문위원

**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전문위원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내 재학생의 인권/성인식 및 인권/성폭력 피해사례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학문화를 구축하고, 재학생의 인권의식과 성인식의 변화 양상 및 인식 변화가 지체된 부분을 검토하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권센터의 예방 교육 및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설계

[표 1] 연구설계

모 집 단	아주대학교 재학생 13,714명(학부생 9,705명, 대학원생 4,009명)
유효표본	803명 (학부생 443명(55%), 대학원생 360명(45%))
조사방법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무기명)
조사기간	2022.07.04.(월)~2022.07.14.(목)

3. 분석대상

- 본 조사 및 연구는 아주대학교 재학생의 인권/성인식 수준과 인권 및 성폭력 피해사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센터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학생 총 80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358명(44.6%), '여학생' 445명(55.4%)으로 구성되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개인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728명(9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직 잘 모르겠음' 34명(4.2%), '양성애' 21명(2.6%), '범성애' 8명(1.0%), '동성애' 5명(0.6%), '무성애' 4명(0.5%), '다성애' 2명(0.2%), '기타'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학부생이 443명(55.2%), 대학원생이 360명(44.8%)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원'이 200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과대학' 136명(16.9%), '정보통신대학' 92명(11.5%), '교육대학원' 79명(9.8%), '사회과학대학' 60명(7.5%), '경영대학' 52명(6.5%), '인문대학' 39명(4.9%), '자연과학대학' 29명(3.6%), '간호대학' 20명(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358	44.6
	여성	445	55.4
성적 지향	이성애	728	90.7
	동성애	5	.6
	양성애	21	2.6
	범성애	8	1.0
	무성애	4	.5
	다성애	2	.2
	아직 잘 모르겠음	34	4.2
	기타	1	.1
소속	공과대학	136	16.9
	정보통신대학	92	11.5
	자연과학대학	29	3.6
	경영대학	52	6.5
	인문대학	39	4.9
	사회과학대학	60	7.5
	간호대학	20	2.5
	약학대학	8	1.0
	의과대학	7	.9
	소계	443	55.2
	일반대학원	200	24.9
	법학전문대학원	8	1.0
	국제대학원	2	.2
	공학대학원	14	1.7
	경영대학원	20	2.5
	공공정책대학원	8	1.0
	교육대학원	79	9.8
	정보통신대학원	12	1.5
	IT융합대학원	4	.5
교통, ITS대학원	6	.7	
보건대학원	5	.6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2	.2	
소계	360	44.8	
학년	학부 1학년	111	13.8
	학부 2학년	97	12.1
	학부 3학년	110	13.7
	학부 4학년	121	15.1
	학부 5학년	4	.5
	석사과정	290	36.1
	박사과정	37	4.6
	석박사 통합과정	33	4.1
계	803	100.0	

응답자의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학부생의 경우 ‘학부 1학년’ 111명(13.8%), ‘학부 2학년’ 97명(12.1%), ‘학부 3학년’ 110명(13.7%), ‘학부 4학년’ 121명(15.1%), ‘학부 5학년’ 4명(0.5%)으로 구성되었고,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과정’ 290명(36.1%), ‘박사과정’ 37명(4.6%), ‘석박사 통합과정’ 33명(4.1%)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도구

- 본 연구는 본교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도, 인지 경로 및 향후 이용 의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인권 및 성평등 의식조사, 대학 생활 중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할 수 있는 20번 문항부터 31번 문항까지의 성폭력 인식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 는 .69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5. 분석방법

-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의 성별, 성적 지향, 소속, 학년 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 성폭력 인식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
 - 조사대상 재학생의 성별, 성적 지향, 소속, 학년에 따른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실태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 분석(χ^2 -검정)
 - 조사대상의 성별, 성적 지향, 소속, 학년에 따라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한 Duncan의 사후검정



제2장 연구결과



제2장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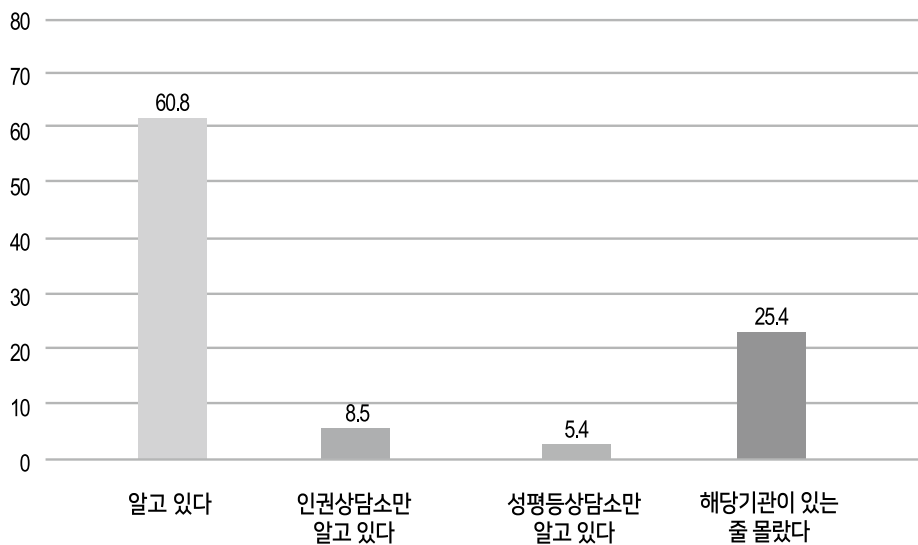
1.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1)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488명(60.8%)은 ‘모두 알고 있다’, 68명(8.5%)은 ‘인권상담소만 알고 있다’, 43명(5.4%)은 ‘성평등상담소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4명(25.4%)은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 설치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488	60.8
	인권상담소만 알고 있다	68	8.5
	성평등상담소만 알고 있다	43	5.4
	해당 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204	25.4
	합계	803	100.0



[그림 1]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

성별로는 남성(63.1%)이 여성(58.3%)에 비해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해당 기관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7.6%)이 남성(22.6%)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소속별로는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인문대학(74.4%), 의과대학(71.4%), 간호대학(65.0%), 대학원(62.8%) 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대학(52.2%)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4, 5학년(73.6%), 대학원(62.8%), 학부 3학년(60.9%), 학부 1학년(49.5%)과 2학년(49.5%) 순으로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6.501, p<.001$).

〈표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구분		알고 있다	인권상담소만 알고 있다	성평등 상담소만 알고 있다	해당 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합계	χ^2 (p)
		N(%)	N(%)	N(%)	N(%)	N(%)	
성별	남성	226(63.1)	29(8.1)	22(6.1)	81(22.6)	358(100.0)	3.411 (.333)
	여성	262(58.9)	39(8.8)	21(4.7)	123(27.6)	445(100.0)	
소속	공과대학	77(56.6)	16(11.8)	8(5.9)	35(25.7)	136(100.0)	31.609 (.247)
	정보통신대학	48(52.2)	9(9.8)	9(9.8)	26(28.3)	92(100.0)	
	자연과학대학	17(58.6)	1(3.4)	2(6.9)	9(31.0)	29(100.0)	
	경영대학	31(59.6)	4(7.7)	3(5.8)	14(26.9)	52(100.0)	
	인문대학	29(74.4)	3(7.7)	2(5.1)	5(12.8)	39(100.0)	
	사회과학대학	37(61.7)	10(16.7)	5(8.3)	8(13.3)	60(100.0)	
	간호대학	13(65.0)	0(0)	2(10.0)	5(25.0)	20(100.0)	
	약학대학	5(62.5)	0(0)	0(0)	3(37.5)	8(100.0)	
	의과대학	5(71.4)	1(14.3)	0(0)	1(14.3)	7(100.0)	
	대학원	226(62.8)	24(6.7)	12(3.3)	98(27.2)	360(100.0)	
학년	학부 1학년	55(49.5)	17(15.3)	6(5.4)	33(29.7)	111(100.0)	36.501*** (.000)
	학부 2학년	48(49.5)	12(12.4)	6(6.2)	31(32.0)	97(100.0)	
	학부 3학년	67(60.9)	9(8.2)	8(7.3)	26(23.6)	110(100.0)	
	학부 4, 5학년	92(73.6)	6(4.8)	11(8.8)	16(12.8)	125(100.0)	
	대학원	226(62.8)	24(6.7)	12(3.3)	98(27.2)	360(100.0)	
전체		488(60.8)	68(8.5)	43(5.4)	204(25.4)	803(1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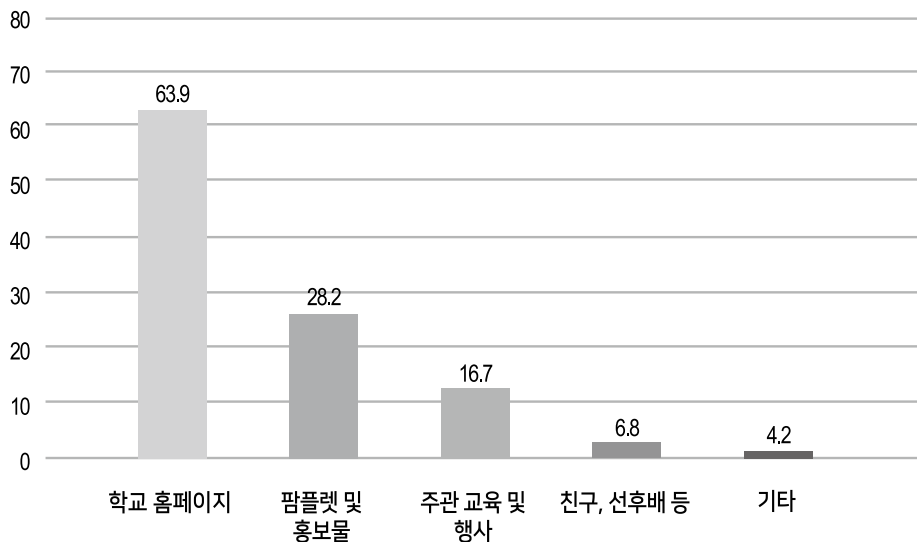
2)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

-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82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팸플렛 및 홍보물’ 169명(28.3%), ‘주관 교육 및 행사’ 100명(16.7%), ‘친구, 선후배 등’ 41명(6.8%), ‘기타’ 25명(4.2%)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웹사이트 검색,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표 5〉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

(복수응답: N=599)

구분	N	%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인지 경로	학교 홈페이지	383	63.9
	팸플렛 및 홍보물	169	28.2
	주관 교육 및 행사	100	16.7
	친구, 선후배 등	41	6.8
	기타	2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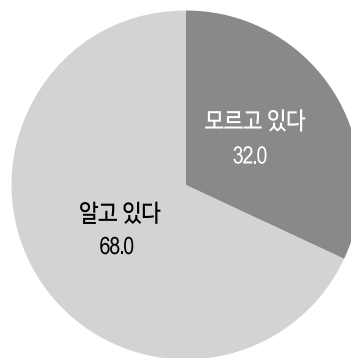
[그림 2]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지 경로

3)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해 546명(68.0%)이 알고 있었고, 257명(32.0%)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546	68
	모르고 있다	257	32
	합계	803	100



[그림 3]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성별로는 남성(69.6%)이 여성(66.7%)에 비해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해 인지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대학원생(79.7%), 인문대학(76.9%), 자연과학대학(69.0%), 정보통신대학(66.3%), 경영대학(61.5%) 학생 순으로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의과대학(42.9%)과 간호대학(45.0%)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9.555, p<.0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생(79.7%), 학부 4, 5학년(67.2%), 학부 1학년(61.3%), 학부 2학년(52.6%), 학부 3학년(50.9%) 순으로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0.452, p<.001$).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한 인지도

구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249 (69.6)	109 (30.4)	.721 (.396)	
	여성	297 (66.7)	148 (33.3)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68 (50.0)	68 (50.0)	136 (100.0)	59.555*** (.000)
	정보통신대학	61 (66.3)	31 (33.7)	92 (100.0)	
	자연과학대학	20 (69.0)	9 (31.0)	29 (100.0)	
	경영대학	32 (61.5)	20 (38.5)	52 (100.0)	
	인문대학	30 (76.9)	9 (23.1)	39 (100.0)	
	사회과학대학	32 (53.3)	28 (46.7)	60 (100.0)	
	간호대학	9 (45.0)	11 (55.0)	20 (100.0)	
	약학대학	4 (50.0)	4 (50.0)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287 (79.7)	73 (20.3)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68 (61.3)	43 (38.7)	111 (100.0)	50.452*** (.000)
	학부 2학년	51 (52.6)	46 (47.4)	97 (100.0)	
	학부 3학년	56 (50.9)	54 (49.1)	110 (100.0)	
	학부 4, 5학년	84 (67.2)	41 (32.8)	125 (100.0)	
	대학원	287 (79.7)	73 (20.3)	360 (100.0)	
전체	546 (68.0)	257 (32.0)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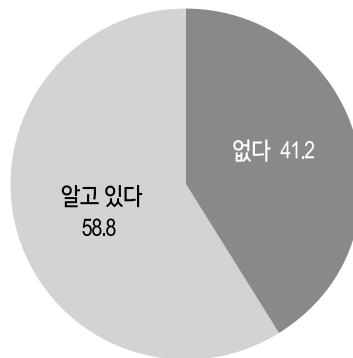
***p<.001

4)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472명(58.8%)이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331명(41.2%)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472 58.8
	없다	331 41.2
	합계	803 100



[그림 4]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성별로는 남성은 62.1%, 여성은 55.3%가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043, p<.05$).

소속별로는 대학원생(82.8%), 인문대학(51.3%), 사회과학대학(45.0%) 순으로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간호대학(30.0%) 학생들의 예방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9.841, p<.0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생(82.8%), 학부 1학년(54.1%), 학부 2학년(36.1%), 학부 3학년(33.6%)과 학부 4, 5학년(33.6%) 순으로 예방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68.627, p<.001$).

〈표 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226 (63.1)	132 (36.9)	358 (100.0)	5.043* (.025)
	여성	246 (55.3)	199 (44.7)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49 (36.0)	87 (64.0)	136 (100.0)	159.841*** (.000)
	정보통신대학	34 (37.0)	58 (63.0)	92 (100.0)	
	자연과학대학	11 (37.9)	18 (62.1)	29 (100.0)	
	경영대학	21 (40.4)	31 (59.6)	52 (100.0)	
	인문대학	20 (51.3)	19 (48.7)	39 (100.0)	
	사회과학대학	27 (45.0)	33 (55.0)	60 (100.0)	
	간호대학	6 (30.0)	14 (70.0)	20 (100.0)	
	약학대학	3 (37.5)	5 (62.5)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298 (82.8)	62 (17.2)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60 (54.1)	51 (45.9)	111 (100.0)	168.627*** (.000)
	학부 2학년	35 (36.1)	62 (63.9)	97 (100.0)	
	학부 3학년	37 (33.6)	73 (66.4)	110 (100.0)	
	학부 4, 5학년	42 (33.6)	83 (66.4)	125 (100.0)	
	대학원	298 (82.8)	62 (17.2)	360 (100.0)	
전체	472 (58.8)	331 (41.2)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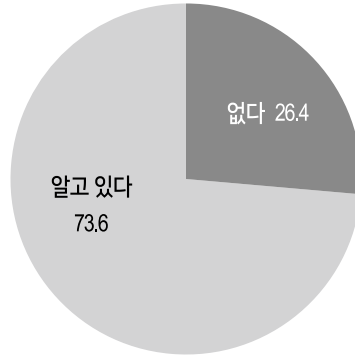
p<.05, *p<.001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591명(73.6%)은 이용 의향이 있었고, 212명(26.4%)은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구분	N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있다	591	73.6
	없다	212	26.4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합계	803	100



[그림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성별로는 여성(74.4%)이 남성(72.6%)에 비해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대학원생(78.6%), 자연과학대학(75.9%), 경영대학(75.0%)과 약학대학(75.0%), 인문대학(74.4%) 학생 순으로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의 의향 비율이 높았고, 의과대학(28.6%) 학생들의 이용 의향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7.022,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생(78.6%), 학부 3학년(71.8%), 학부 2학년 (71.1%), 학부 1학년(69.4%), 학부 4, 5학년(66.4%) 순으로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9.493, p<.05$).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260	(72.6)	98	(27.4)	358	(100.0)	.315 (.575)
	여성	331	(74.4)	114	(25.6)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94	(69.1)	42	(30.9)	136	(100.0)	17.022* (.048)
	정보통신대학	61	(66.3)	31	(33.7)	92	(100.0)	
	자연과학대학	22	(75.9)	7	(24.1)	29	(100.0)	
	경영대학	39	(75.0)	13	(25.0)	52	(100.0)	
	인문대학	29	(74.4)	10	(25.6)	39	(100.0)	
	사회과학대학	41	(68.3)	19	(31.7)	60	(100.0)	
	간호대학	14	(70.0)	6	(30.0)	20	(100.0)	
	약학대학	6	(75.0)	2	(25.0)	8	(100.0)	
	의과대학	2	(28.6)	5	(71.4)	7	(100.0)	
	대학원	283	(78.6)	77	(21.4)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77	(69.4)	34	(30.6)	111	(100.0)	9.493* (.049)
	학부 2학년	69	(71.1)	28	(28.9)	97	(100.0)	
	학부 3학년	79	(71.8)	31	(28.2)	110	(100.0)	
	학부 4, 5학년	83	(66.4)	42	(33.6)	125	(100.0)	
	대학원	283	(78.6)	77	(21.4)	360	(100.0)	
전체	591	(73.6)	212	(26.4)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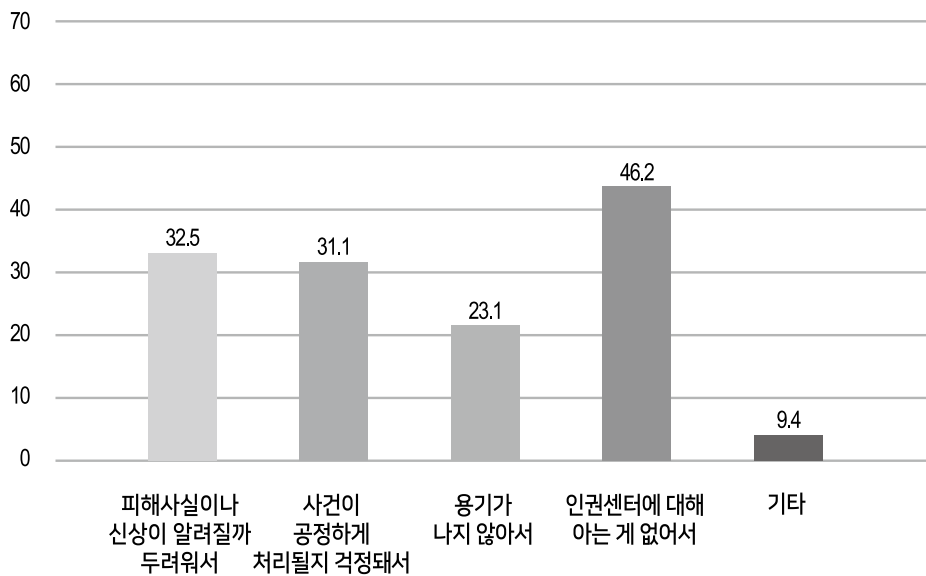
*p<.05

6)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인권센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8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 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69명(32.5%)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걱정돼서’ 66명(31.1%), ‘용기가 나지 않아서’ 49명(23.1%), ‘기타’ 20명(9.4%)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교내 인권센터보다는 경찰 등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구분	N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피해 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69	32.5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걱정돼서	66	31.1
	용기가 나지 않아서	49	23.1
	인권센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98	46.2
	기타	20	9.4
	합계	2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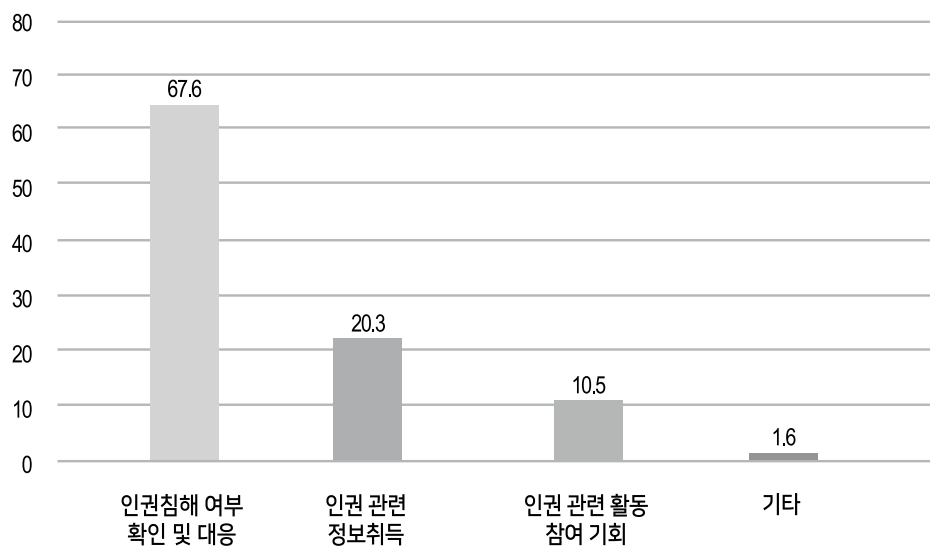
[그림 6]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미이용 이유

7)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이 543명(6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권 관련 정보취득’ 163명 (20.3%), ‘인권 관련 활동 참여 기회’ 84명(10.5%), ‘기타’ 13명(1.6%)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13〉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구분	N	%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543	67.6
	인권 관련 정보취득	163	20.3
	인권 관련 활동 참여 기회	84	10.5
	기타	13	1.6
	합계	803	100



[그림 7]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성별로는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은 여성(71.7%)이 남성(6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권 관련 정보취득’ 희망 비율은 남성(25.7%)이 여성(1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457, p<.01$).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82.8%), 약학대학(75.0%), 간호대학(70.0%), 경영대학(59.2%), 대학원(68.6%) 학생 순으로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3학년(70.9%), 학부 4, 5학년(68.8%), 대학원(68.6%), 학부 1학년(64.0%), 학부 2학년(62.9%) 순으로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구분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인권 관련 정보취득	인권 관련 활동 참여 기회	기타	합계	χ^2 (p)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24 (62.6)	92 (25.7)	35 (9.8)	7 (2.0)	358 (100.0)	12.457** (.006)
	여성	319 (71.7)	71 (16.0)	49 (11.0)	6 (1.3)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87 (64.0)	36 (26.5)	11 (8.1)	2 (1.5)	136 (100.0)	33.258 (.189)
	정보통신대학	63 (68.5)	17 (18.5)	9 (9.8)	3 (3.3)	92 (100.0)	
	자연과학대학	24 (82.8)	3 (10.3)	2 (6.9)	0 (.0)	29 (100.0)	
	경영대학	36 (69.2)	12 (23.1)	4 (7.7)	0 (.0)	52 (100.0)	
	인문대학	25 (64.1)	5 (12.8)	9 (23.1)	0 (.0)	39 (100.0)	
	사회과학대학	37 (61.7)	8 (13.3)	14 (23.3)	1 (1.7)	60 (100.0)	
	간호대학	14 (70.0)	4 (20.0)	1 (5.0)	1 (5.0)	20 (100.0)	
	약학대학	6 (75.0)	2 (25.0)	0 (.0)	0 (.0)	8 (100.0)	
	의과대학	4 (57.1)	2 (28.6)	1 (14.3)	0 (.0)	7 (100.0)	
	대학원	247 (68.6)	74 (20.6)	33 (9.2)	6 (1.7)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71 (64.0)	27 (24.3)	12 (10.8)	1 (.9)	111 (100.0)	6.487 (.890)
	학부 2학년	61 (62.9)	19 (19.6)	15 (15.5)	2 (2.1)	97 (100.0)	
	학부 3학년	78 (70.9)	21 (19.1)	9 (8.2)	2 (1.8)	110 (100.0)	
	학부 4, 5학년	86 (68.8)	22 (17.6)	15 (12.0)	2 (1.6)	125 (100.0)	
	대학원	247 (68.6)	74 (20.6)	33 (9.2)	6 (1.7)	360 (100.0)	
전체		543 (67.6)	163 (20.3)	84 (10.5)	13 (1.6)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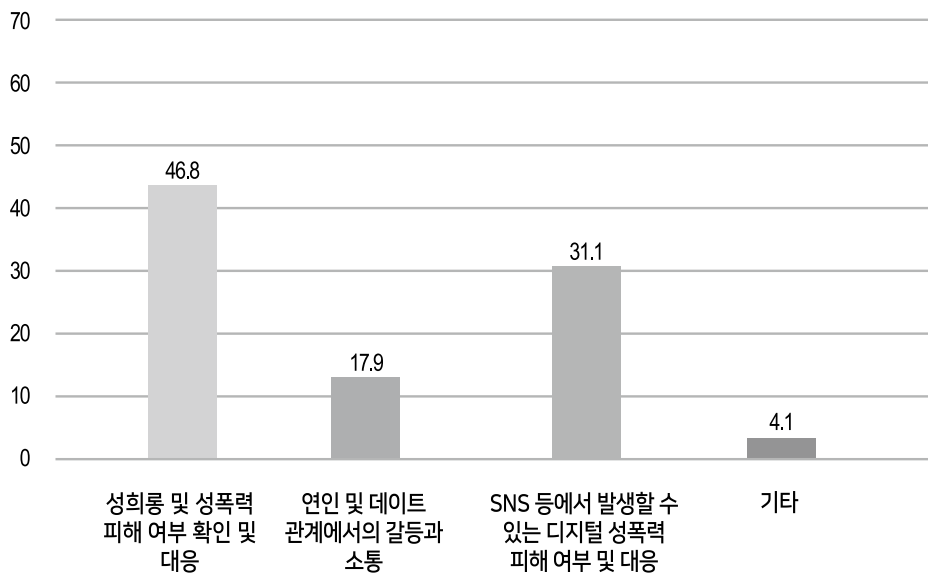
**p<.01

8)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이 37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144명(17.9%),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250명(31.1%), ‘기타’ 33명(4.1%)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성폭력 관련 상식이나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표 15〉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구분	N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376	46.8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144	17.9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250	31.1
기타	33	4.1
합계	803	100



[그림 8]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성별로는 여성(71.7%)이 남성(62.6%)에 비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82.8%), 약학대학(75.0%), 간호대학(70.0%), 경영대학(69.2%), 대학원(68.6%) 학생 순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의과대학(28.6%)과 공과대학(26.5%) 학생들은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을, 인문대학(23.1%)과 사회과학대학(23.3%) 학생들은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관련 내용의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8.779, p<.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은 학부 3학년(70.9%)이 가장 높고, 학부 2학년(62.9%)이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학부 1학년(24.3%)은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년별로 원하는 세부 내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33.288, p<.01$).

〈표 1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

구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기타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224	(62.6)	92	(25.7)	35	(9.8)	7	(2.0)	358 (100.0)	4.206 (.240)
	여성	319	(71.7)	71	(16.0)	49	(11.0)	6	(1.3)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87	(64.0)	36	(26.5)	11	(8.1)	2	(1.5)	136 (100.0)	48.779** (.006)
	정보통신대학	63	(68.5)	17	(18.5)	9	(9.8)	3	(3.3)	92 (100.0)	
	자연과학대학	24	(82.8)	3	(10.3)	2	(6.9)	0	(.0)	29 (100.0)	
	경영대학	36	(69.2)	12	(23.1)	4	(7.7)	0	(.0)	52 (100.0)	
	인문대학	25	(64.1)	5	(12.8)	9	(23.1)	0	(.0)	39 (100.0)	
	사회과학대학	37	(61.7)	8	(13.3)	14	(23.3)	1	(1.7)	60 (100.0)	
	간호대학	14	(70.0)	4	(20.0)	1	(5.0)	1	(5.0)	20 (100.0)	
	약학대학	6	(75.0)	2	(25.0)	0	(.0)	0	(.0)	8 (100.0)	
	의과대학	4	(57.1)	2	(28.6)	1	(14.3)	0	(.0)	7 (100.0)	
	대학원	247	(68.6)	74	(20.6)	33	(9.2)	6	(1.7)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71	(64.0)	27	(24.3)	12	(10.8)	1	(.9)	111 (100.0)	33.288** (.001)
	학부 2학년	61	(62.9)	19	(19.6)	15	(15.5)	2	(2.1)	97 (100.0)	
	학부 3학년	78	(70.9)	21	(19.1)	9	(8.2)	2	(1.8)	110 (100.0)	
	학부 4, 5학년	86	(68.8)	22	(17.6)	15	(12.0)	2	(1.6)	125 (100.0)	
	대학원	247	(68.6)	74	(20.6)	33	(9.2)	6	(1.7)	360 (100.0)	
전체		543	(67.6)	163	(20.3)	84	(10.5)	13	(1.6)	803 (100.0)	

**p<.01

2. 인권 및 성평등 의식

1)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과거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해 재학생들의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26.0%)와 ‘매우 필요하다’(17.9%) 등 43.9%의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9.5%였으며, ‘필요하지 않다’(10.5%)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6.1%) 등 26.6%의 응답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35.9%)와 ‘매우 필요하다’(52.4%)로 88.3%의 대부분 학생이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1.4%였으며, ‘필요하지 않다’(2.1%)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4%) 등 응답자의 3.5%만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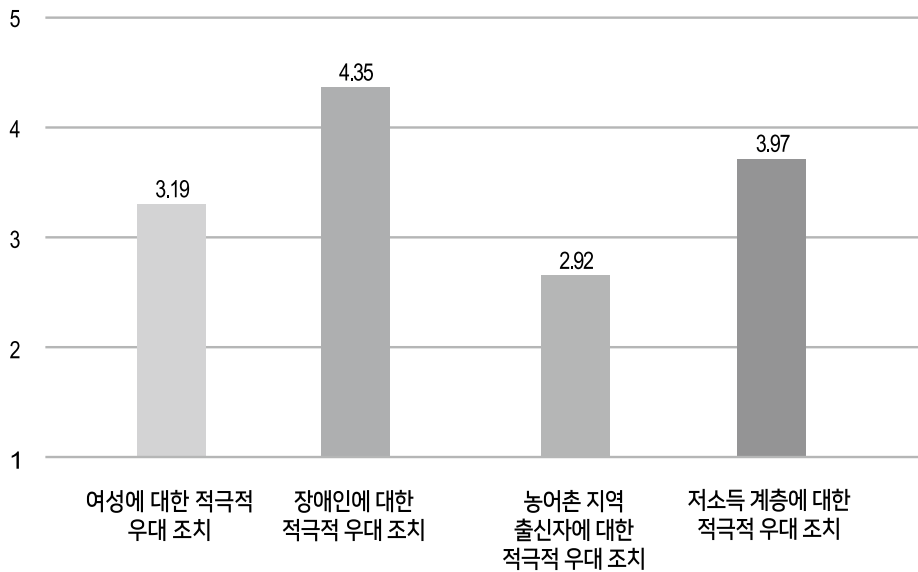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19.8%)와 ‘매우 필요하다’(11.3%) 등 31.1%가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33.4%였으며, ‘필요하지 않다’(14.8%)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20.7%) 등 응답자의 35.5%는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4.0%)와 ‘매우 필요하다’(32.5%)로 76.5%의 많은 학생이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14.8%였으며, ‘필요하지 않다’(3.2%)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5.5%) 등 응답자의 8.7%만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인식이 4.35로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3.97),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3.19) 순으로 높았으나,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92)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7〉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N	129	84	237	209	144	803	3.19	1.30
	(%)	(16.1)	(10.5)	(29.5)	(26.0)	(17.9)	(100.0)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N	17	11	66	288	421	803	4.35	.85
	(%)	(2.1)	(1.4)	(8.2)	(35.9)	(52.4)	(100.0)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N	119	166	268	159	91	803	2.92	1.20
	(%)	(14.8)	(20.7)	(33.4)	(19.8)	(11.3)	(100.0)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N	26	44	119	353	261	803	3.97	.99
	(%)	(3.2)	(5.5)	(14.8)	(44.0)	(32.5)	(100.0)		



[그림 9]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은 3.65로 비교적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남성은 2.63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11.762,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4.00) 학생들이 이성애(3.15) 학생들에 비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1, p<.05$).

소속별로는 간호대학(4.15) 학생들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대학(2.67)과 의과대학(2.71), 공과대학(2.74)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6.961, p<.0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3.36) 학생들이 학부 4, 5학년(2.99)에 비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32, p<.05$).

〈표 18〉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성	358	2.63	1.31	-11.762***	.000
	여성	445	3.65	1.10		
성적 지향	이성애	728	3.15 ^b	1.31	3.581*	.014
	양성애	21	4.00 ^a	1.00		
	아직 잘 모르겠음	34	3.38 ^{ab}	1.18		
	동성애 등 기타	20	3.50 ^{ab}	1.28		
소속	공과대학	136	2.7 ^{4c}	1.22	6.961***	.000
	정보통신대학	92	2.67 ^c	1.24		
	자연과학대학	29	3.14 ^{bc}	1.33		
	경영대학	52	3.40 ^b	1.14		
	인문대학	39	3.77 ^{ab}	1.16		
	사회과학대학	60	3.25 ^b	1.37		
	간호대학	20	4.15 ^a	.88		
	약학대학	8	3.00 ^{bc}	1.77		
	의과대학	7	2.71 ^c	.76		
	대학원	360	3.36 ^{bc}	1.29		
학년	학부 1학년	111	3.13 ^{ab}	1.19	2.932*	.020
	학부 2학년	97	3.03 ^{ab}	1.24		
	학부 3학년	110	3.08 ^{ab}	1.32		
	학부 4, 5학년	125	2.99 ^b	1.41		
	대학원	360	3.36 ^a	1.29		
	전체	803	3.19	1.30		

* $p<.05$, *** $p<.001$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성별로는 여성(4.51)이 남성(4.16)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10,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4.71)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동성애 등 기타(4.05) 학생들이 가장 낮았으나, 성적 지향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소속별로는 약학대학(4.75)과 간호대학(4.65)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의과대학(3.57)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단과대학과 대학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속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194,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4.42)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학부 4, 5학년(4.24)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성	358	4.16	.99	-5.610***	.000
	여성	445	4.51	.69		
성적 지향	이성애	728	4.35	.86	2.169	.090
	양성애	21	4.71	.46		
	아직 잘 모르겠음	34	4.41	.70		
	동성애 등 기타	20	4.05	1.10		
소속	공과대학	136	4.26 ^a	.84	2.194*	.021
	정보통신대학	92	4.22 ^a	.86		
	자연과학대학	29	4.17 ^a	1.00		
	경영대학	52	4.25 ^a	.88		
	인문대학	39	4.36 ^a	.99		
	사회과학대학	60	4.48 ^a	.70		
	간호대학	20	4.65 ^a	.49		
	약학대학	8	4.75 ^a	.71		
	의과대학	7	3.57 ^b	.79		
	대학원	360	4.42 ^a	.85		
학년	학부 1학년	111	4.29	.73	1.533	.191
	학부 2학년	97	4.27	.87		
	학부 3학년	110	4.40	.71		
	학부 4, 5학년	125	4.24	1.03		
	대학원	360	4.42	.85		
	전체	803	4.35	.85		

* $p<.05$, *** $p<.001$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성별로는 여성(3.06)이 남성(2.75)에 비해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595,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3.38) 학생들의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이성애(2.90) 학생들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속별로는 인문대학(3.26) 학생들의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공과대학(2.45)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4.779, p<.0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3.12) 학생들의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학부 4, 5학년(2.65)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521, p<.001$).

〈표 20〉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성	358	2.75	1.24	-3.595***	.000
	여성	445	3.06	1.16		
성적 지향	이성애	728	2.90	1.20	1.775	.150
	양성애	21	3.38	1.16		
	아직 잘 모르겠음	34	3.21	1.27		
	동성애 등 기타	20	2.90	1.25		
소속	공과대학	136	2.45 ^c	1.15	4.779***	.000
	정보통신대학	92	2.65 ^{bc}	1.13		
	자연과학대학	29	3.10 ^a	1.05		
	경영대학	52	2.77 ^b	1.08		
	인문대학	39	3.26 ^a	1.29		
	사회과학대학	60	3.02 ^{ab}	1.24		
	간호대학	20	3.15 ^{ab}	1.53		
	약학대학	8	2.63 ^{bc}	1.60		
	의과대학	7	3.00 ^{ab}	1.00		
	대학원	360	3.12 ^{ab}	1.17		
학년	학부 1학년	111	2.73 ^{bc}	1.19	5.521***	.000
	학부 2학년	97	2.98 ^{ab}	1.21		
	학부 3학년	110	2.74 ^{bc}	1.16		
	학부 4, 5학년	125	2.65 ^c	1.25		
	대학원	360	3.12 ^a	1.17		
	전체	803	2.92	1.20		

*** $p<.001$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여성(4.04)이 남성(3.88)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83, p<.05$).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4.57) 학생들이 이성애(3.95)와 동성애 등 기타(3.75)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601, p<.05$).

소속별로는 사회과학대학(4.20)과 간호대학(4.20), 경영대학(4.08) 학생들이 공과대학(3.67)과 의과대학(3.71), 약학대학(3.75)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소속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F=2.262,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2학년(4.08)과 대학원(4.03), 학부 3학년(4.02), 학부 1학년(3.97) 학생들이 학부 4, 5학년(3.66)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F=3.736, p<.01$).

〈표 2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성	358	3.88	1.06	-2.283*	.023
	여성	445	4.04	.93		
성적 지향	이성애	728	3.95 ^b	.99	3.260*	.021
	양성애	21	4.57 ^a	.51		
	아직 잘 모르겠음	34	4.12 ^{ab}	.95		
	동성애 등 기타	20	3.75 ^b	1.25		
소속	공과대학	136	3.67 ^b	1.14	2.262*	.017
	정보통신대학	92	3.92 ^{ab}	.96		
	자연과학대학	29	3.97 ^{ab}	.91		
	경영대학	52	4.08 ^a	.74		
	인문대학	39	4.05 ^{ab}	1.07		
	사회과학대학	60	4.20 ^a	1.04		
	간호대학	20	4.20 ^a	1.06		
	약학대학	8	3.75 ^b	1.58		
	의과대학	7	3.71 ^b	.49		
	대학원	360	4.03 ^{ab}	.93		
학년	학부 1학년	111	3.97 ^a	.90	3.736**	.005
	학부 2학년	97	4.08 ^a	.95		
	학부 3학년	110	4.02 ^a	.95		
	학부 4, 5학년	125	3.66 ^b	1.23		
	대학원	360	4.03 ^a	.93		
전체		803	3.97	.99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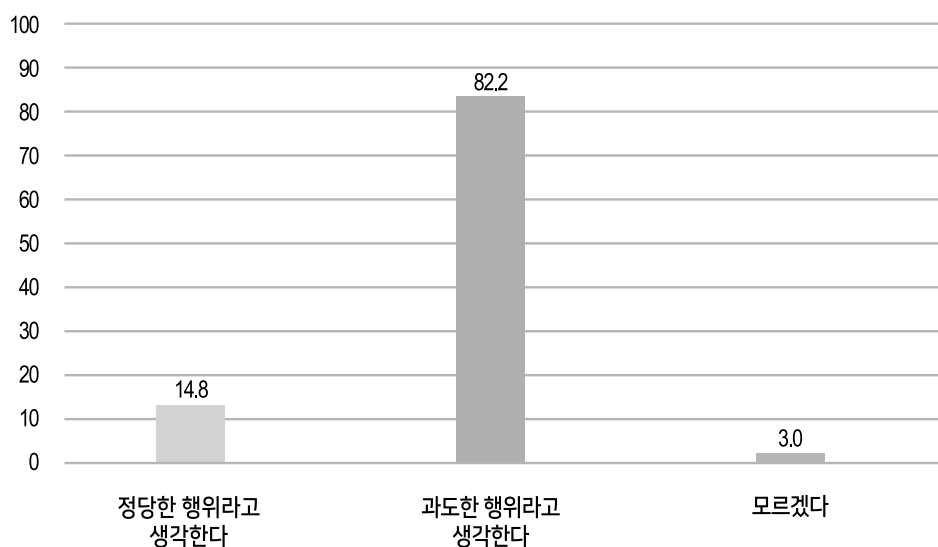
2) 학내 인권침해 우려 사례에 대한 인식조사

(1)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 A는 시험시간 중 B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고, 이에 A는 B의 신상정보 및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내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660명(82.2%)의 대부분 학생들이 'B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의 행위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B의 행위는 널리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므로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다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19명(14.8%)에 불과하였으며, 24명(3.0%)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22〉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구분		N	%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B의 행위는 널리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므로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다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119	14.8
	B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의 행위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660	82.2
	모르겠다	24	3.0
합계		803	100.0



[그림 10]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87.0%)이 남성(76.3%)에 비해 높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19.6%)이 여성(11.0%)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655, p<.001$).

소속별로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사회과학대학(90.0%), 경영대학(88.5%), 약학대학(87.5%), 의과대학(85.7%), 대학원(84.4%) 학생 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은 30.0%가 ‘정당한 행위’라는 응답을 보여 다른 대학 소속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28.924, p<.05$).

학년별로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학부 1학년(84.7%), 대학원(74.2%), 학부 4, 5학년(83.2%), 학부 3학년(78.2%), 학부 2학년(74.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구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70 (19.6)	273 (76.3)	15 (4.2)	358 (100.0)	15.655*** (.000)			
	여성	49 (11.0)	387 (87.0)	9 (2.0)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23 (16.9)	107 (78.7)	6 (4.4)	136 (100.0)	28.924* (.049)			
	정보통신대학	22 (23.9)	65 (70.7)	5 (5.4)	92 (100.0)				
	자연과학대학	4 (13.8)	24 (82.8)	1 (3.4)	29 (100.0)				
	경영대학	6 (11.5)	46 (88.5)	0 (.0)	52 (100.0)				
	인문대학	6 (15.4)	33 (84.6)	0 (.0)	39 (100.0)				
	사회과학대학	5 (8.3)	54 (90.0)	1 (1.7)	60 (100.0)				
	간호대학	6 (30.0)	14 (70.0)	0 (.0)	20 (100.0)				
	약학대학	0 (.0)	7 (87.5)	1 (12.5)	8 (100.0)				
	의과대학	0 (.0)	6 (85.7)	1 (14.3)	7 (100.0)				
	대학원	47 (13.1)	304 (84.4)	9 (2.5)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6 (14.4)	94 (84.7)	1 (.9)	111 (100.0)	9.167 (.328)			
	학부 2학년	20 (20.6)	72 (74.2)	5 (5.2)	97 (100.0)				
	학부 3학년	19 (17.3)	86 (78.2)	5 (4.5)	110 (100.0)				
	학부 4, 5학년	17 (13.6)	104 (83.2)	4 (3.2)	125 (100.0)				
	대학원	47 (13.1)	304 (84.4)	9 (2.5)	360 (100.0)				
전체	119 (14.8)	660 (82.2)	24 (3.0)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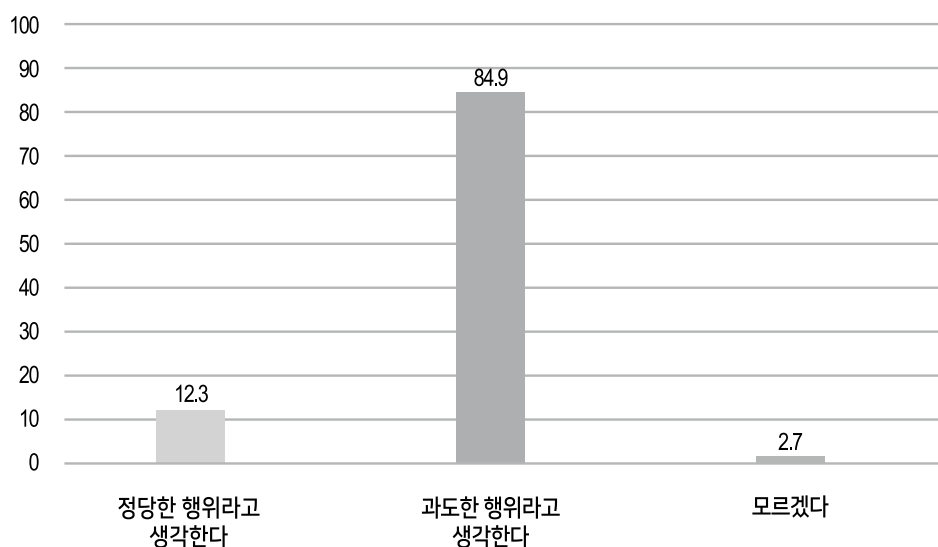
* $p<.05$, *** $p<.001$

(2)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 동아리 후배 B 등이 동아리 규칙을 어기고 동아리방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된 동아리 대표 A는 B 등 일행을 불러내어 동아리 규칙에 따라 단체 기합을 주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682명(84.9%)의 대부분 학생들은 ‘동아리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이다’는 반응을 보였고, 99명(12.3%)만이 ‘동아리 내에서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아리 자율에 맡길 사항이므로, A가 B 등에 대하여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22명(2.7%)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24〉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구분		N	%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동아리 내에서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아리 자율에 맡길 사항 이므로, A가 B 등에 대하여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99	12.3
	동아리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이다	682	84.9
	모르겠다	22	2.7
합계		803	100.0



[그림 11]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라는 응답 비율은 여성(87.4%)이 남성(81.8%)에 비해 높았고,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14.5%)이 여성(1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속별로는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간호대학(95.0%), 사회과학대학(90.0%), 인문대학(87.2%), 대학원(86.9%) 학생 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약학대학(25.0%)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라는 응답 비율은 학부 1학년(89.2%), 학부 4, 5학년(88.0%), 대학원(86.9%), 학부 3학년(80.0%), 학부 2학년(74.2%) 순으로 높았고,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학부 2학년(20.6%)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6.796, p<.05$).

〈표 2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동아리방 규칙 위반으로 인한 단체 기합에 대한 인식

구분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는 제재이다	모르겠다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52 (14.5)	293 (81.8)	13 (3.6)	358 (100.0)	5.127 (.077)
	여성	47 (10.6)	389 (87.4)	9 (2.0)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24 (17.6)	108 (79.4)	4 (2.9)	136 (100.0)	17.942 (.460)
	정보통신대학	11 (12.0)	77 (83.7)	4 (4.3)	92 (100.0)	
	자연과학대학	6 (20.7)	22 (75.9)	1 (3.4)	29 (100.0)	
	경영대학	6 (11.5)	44 (84.6)	2 (3.8)	52 (100.0)	
	인문대학	5 (12.8)	34 (87.2)	0 (.0)	39 (100.0)	
	사회과학대학	6 (10.0)	54 (90.0)	0 (.0)	60 (100.0)	
	간호대학	1 (5.0)	19 (95.0)	0 (.0)	20 (100.0)	
	약학대학	2 (25.0)	6 (75.0)	0 (.0)	8 (100.0)	
	의과대학	1 (14.3)	5 (71.4)	1 (14.3)	7 (100.0)	
대학원	37 (10.3)	313 (86.9)	10 (2.8)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1 (9.9)	99 (89.2)	1 (.9)	111 (100.0)	16.796* (.032)
	학부 2학년	20 (20.6)	72 (74.2)	5 (5.2)	97 (100.0)	
	학부 3학년	17 (15.5)	88 (80.0)	5 (4.5)	110 (100.0)	
	학부 4, 5학년	14 (11.2)	110 (88.0)	1 (.8)	125 (100.0)	
	대학원	37 (10.3)	313 (86.9)	10 (2.8)	360 (100.0)	
전체	99 (12.3)	682 (84.9)	22 (2.7)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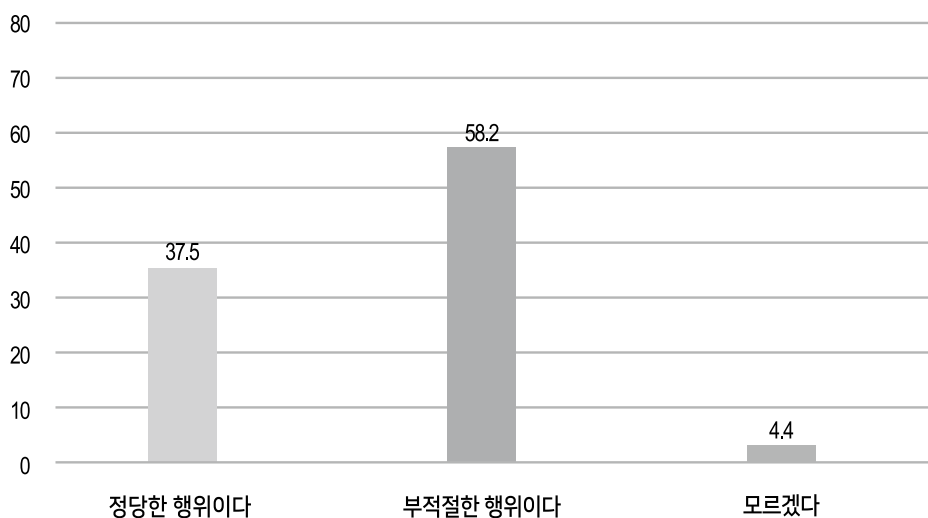
*p<.05

(3)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 A교수는 학기 말 성적 공고 기간 중 자신의 연구실 앞 게시판에 담당 과목의 채점표를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경우 수강생의 소속 학과 및 이름은 비공개하고, 학번만을 공개하였으며, 각 항목 별(중간시험 점수, 기말시험 점수, 과제점수, 출석 점수) 점수를 공지한 경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비록 소속 학과 및 이름이 비공개되었다 할지라도 학번의 공개만으로도 타인의 성적 등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는 응답이 467명(58.2%)으로 ‘A의 행위는 수강생이 자신의 성적과 타 수강생의 성적을 비교하여 자신이 취득하게 될 학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는 응답 301명(37.5%)에 비해 많았으며, 35명(4.4%)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26〉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구분	N	%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A의 행위는 수강생이 자신의 성적과 타 수강생의 성적을 비교하여 자신이 취득하게 될 학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	301	37.5
	비록 소속 학과 및 이름이 비공개되었다 할지라도 학번의 공개만으로도 타인의 성적 등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	467	58.2
	모르겠다	35	4.4
	합계	803	100.0



[그림 12]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65.6%)이 남성(48.9%)에 비해 높았고,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6.4%)이 여성(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3.382, p<.001$).

소속별로는 간호대학(75.0%), 인문대학(71.8%), 대학원(66.9%), 사회과학대학(65.0%), 약학대학(62.5%) 학생들은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정보통신대학(57.6%), 의과대학(57.1%), 공과대학(51.5%) 학생들은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54.576, p<.0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생의 경우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66.9%)이,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28.6%)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학부 1, 2, 3학년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응답 비율과 ‘정당한 행위’라는 응답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2.664, p<.001$).

〈표 2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의 게시판 성적 공개에 대한 인식

구분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	부적절한 행위이다	모르겠다	합계	χ^2 (p)
		N(%)	N(%)	N(%)	N(%)	
성별	남성	166(46.4)	175(48.9)	17(4.7)	358(100.0)	23.382*** (.000)
	여성	135(30.3)	292(65.6)	18(4.0)	445(100.0)	
소속	공과대학	70(51.5)	58(42.6)	8(5.9)	136(100.0)	54.576*** (.000)
	정보통신대학	53(57.6)	34(37.0)	5(5.4)	92(100.0)	
	자연과학대학	13(44.8)	15(51.7)	1(3.4)	29(100.0)	
	경영대학	22(42.3)	29(55.8)	1(1.9)	52(100.0)	
	인문대학	10(25.6)	28(71.8)	1(2.6)	39(100.0)	
	사회과학대학	19(31.7)	39(65.0)	2(3.3)	60(100.0)	
	간호대학	5(25.0)	15(75.0)	0(0)	20(100.0)	
	약학대학	2(25.0)	5(62.5)	1(12.5)	8(100.0)	
	의과대학	4(57.1)	3(42.9)	0(0)	7(100.0)	
대학원	103(28.6)	241(66.9)	16(4.4)	360(100.0)		
학년	학부 1학년	53(47.7)	55(49.5)	3(2.7)	111(100.0)	32.664*** (.000)
	학부 2학년	46(47.4)	49(50.5)	2(2.1)	97(100.0)	
	학부 3학년	49(44.5)	51(46.4)	10(9.1)	110(100.0)	
	학부 4, 5학년	50(40.0)	71(56.8)	4(3.2)	125(100.0)	
	대학원	103(28.6)	241(66.9)	16(4.4)	360(100.0)	
전체		301(37.5)	467(58.2)	35(4.4)	80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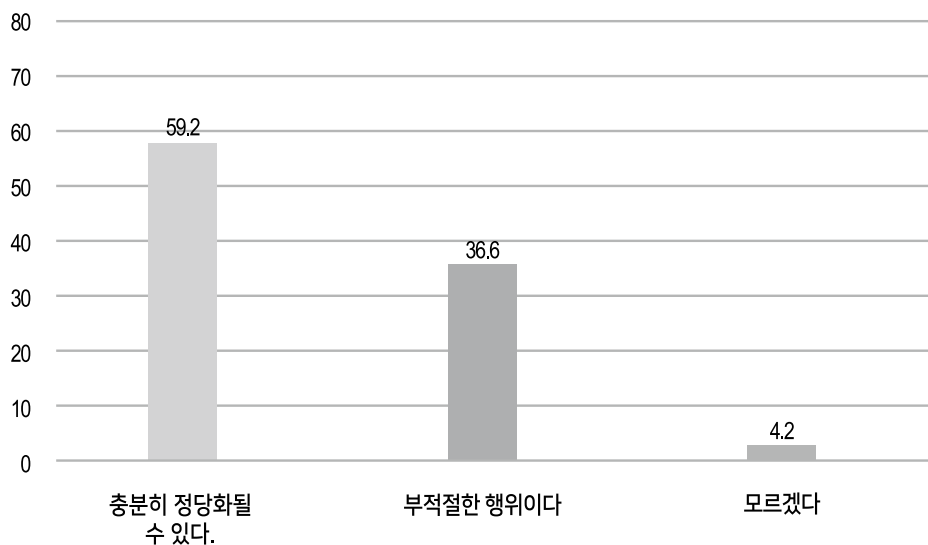
*** $p<.001$

(4)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 A교수는 자기 전공 분야의 유명인사인 B를 본교 특강 연사로 초청하여 자신의 개설과목 수강생들에게 휴강을 하는 대신 이 특강에 참석하는 것으로 수업 및 출석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B연사가 해당 교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A의 행위는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는 응답이 475명(59.2%)으로 '해당 과목 수강생들에게 있어서 이 특강은 시간 및 일정 에 있어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 특강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원치 않는 행사에의 동원 또는 참석 강요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행위이다'라는 응답 294명(36.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4명(4.2%)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28〉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구분	N	%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B연사가 해당 교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수업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A의 행위는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	475 59.2
	해당 과목 수강생들에게 있어서 이 특강은 시간 및 일정 에 있어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 특강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원치 않는 행사에의 동원 또는 참석 강요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294 36.6
	모르겠다	34 4.2
	합계	803 100.0



[그림 13]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58.7%), 여성(59.6%)이 비슷하였고, ‘특강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원치 않는 행사에 의 동원 또는 참석 강요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행위이다’는 응답 비율 역시 남성(36.9%), 여성(36.4%)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약학대학 학생들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응답 비율(50.0%)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응답 비율 (35.7%)에 비해 높았고, 나머지 단과대학과 대학원 학생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3학년(66.4%), 학부 4, 5학년(62.4%), 대학원(57.8%), 학부 1학년 (55.9%), 학부 2학년(55.7%)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과목 대체 특강 참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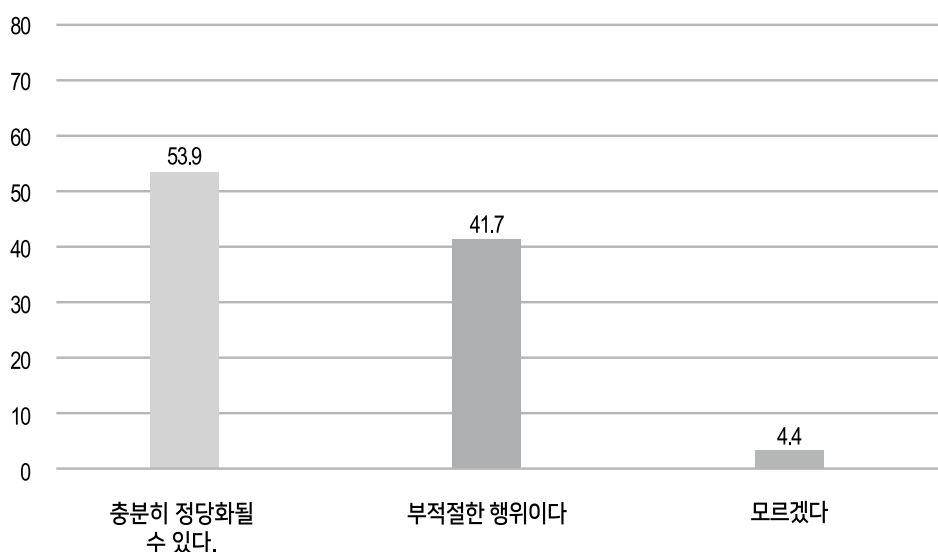
구분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부적절한 행위이다	모르겠다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210 (58.7)	132 (36.9)	16 (4.5)	358 (100.0)	.123 (.940)
	여성	265 (59.6)	162 (36.4)	18 (4.0)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87 (64.0)	46 (33.8)	3 (2.2)	136 (100.0)	13.449 (.764)
	정보통신대학	52 (56.5)	32 (34.8)	8 (8.7)	92 (100.0)	
	자연과학대학	19 (65.5)	9 (31.0)	1 (3.4)	29 (100.0)	
	경영대학	34 (65.4)	16 (30.8)	2 (3.8)	52 (100.0)	
	인문대학	22 (56.4)	16 (41.0)	1 (2.6)	39 (100.0)	
	사회과학대학	35 (58.3)	23 (38.3)	2 (3.3)	60 (100.0)	
	간호대학	11 (55.0)	8 (40.0)	1 (5.0)	20 (100.0)	
	약학대학	3 (37.5)	4 (50.0)	1 (12.5)	8 (100.0)	
	의과대학	4 (57.1)	2 (28.6)	1 (14.3)	7 (100.0)	
	대학원	208 (57.8)	138 (38.3)	14 (3.9)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62 (55.9)	44 (39.6)	5 (4.5)	111 (100.0)	6.335 (.610)
	학부 2학년	54 (55.7)	36 (37.1)	7 (7.2)	97 (100.0)	
	학부 3학년	73 (66.4)	34 (30.9)	3 (2.7)	110 (100.0)	
	학부 4, 5학년	78 (62.4)	42 (33.6)	5 (4.0)	125 (100.0)	
	대학원	208 (57.8)	138 (38.3)	14 (3.9)	360 (100.0)	
전체		475 (59.2)	294 (36.6)	34 (4.2)	803 (100.0)	

(5)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433명(53.9%)은 '진학이나 취업 등 경쟁 심화에 따라 학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학점관리에만 소진된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하여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 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35명(41.7%)은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추가 등록금 부담 및 졸업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등 충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재수강하여 높은 학점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재수강이라는 이유로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명(4.4%)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30〉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구분		N	%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진학이나 취업 등 경쟁 심화에 따라 학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학점관리에만 소진된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하여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 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433	53.9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추가 등록금 부담 및 졸업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등 충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재수강하여 높은 학점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재수강이라는 이유로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335	41.7
	모르겠다	35	4.4
	합계	803	100.0



[그림 14]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남성(55.9%)과 여성(52.4%) 모두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 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은 ‘재수강이라는 이유로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는 응답 비율(48.3%)이 ‘합리적인 차별이다’는 응답 비율(41.4%)에 비해 높았고, 의과대학(85.7%), 경영대학(63.5%), 정보통신대학(63.0%) 약학대학(62.5%) 등 나머지 대학과 대학원생은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 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4, 5학년(64.0%), 학부 1학년(59.5%), 학부 2학년(54.6%), 학부 3학년(55.5%), 대학원(48.1%) 순으로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 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에 대한 인식

구분	합리적인 차별이다		불합리한 차별이다		모르겠다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200	(55.9)	141	(39.4)	17	(4.7)	358	(100.0)	1.522 (.468)
	여성	233	(52.4)	194	(43.6)	18	(4.0)	445	(100.0)	
소속	공과대학	80	(58.8)	49	(36.0)	7	(5.1)	136	(100.0)	21.731 (.244)
	정보통신대학	58	(63.0)	30	(32.6)	4	(4.3)	92	(100.0)	
	자연과학대학	12	(41.4)	14	(48.3)	3	(10.3)	29	(100.0)	
	경영대학	33	(63.5)	18	(34.6)	1	(1.9)	52	(100.0)	
	인문대학	22	(56.4)	16	(41.0)	1	(2.6)	39	(100.0)	
	사회과학대학	32	(53.3)	27	(45.0)	1	(1.7)	60	(100.0)	
	간호대학	12	(60.0)	8	(40.0)	0	(.0)	20	(100.0)	
	약학대학	5	(62.5)	3	(37.5)	0	(.0)	8	(100.0)	
	의과대학	6	(85.7)	1	(14.3)	0	(.0)	7	(100.0)	
	대학원	173	(48.1)	169	(46.9)	18	(5.0)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66	(59.5)	41	(36.9)	4	(3.6)	111	(100.0)	15.074 (.058)
	학부 2학년	53	(54.6)	38	(39.2)	6	(6.2)	97	(100.0)	
	학부 3학년	61	(55.5)	43	(39.1)	6	(5.5)	110	(100.0)	
	학부 4, 5학년	80	(64.0)	44	(35.2)	1	(.8)	125	(100.0)	
	대학원	173	(48.1)	169	(46.9)	18	(5.0)	360	(100.0)	
전체	433	(53.9)	335	(41.7)	35	(4.4)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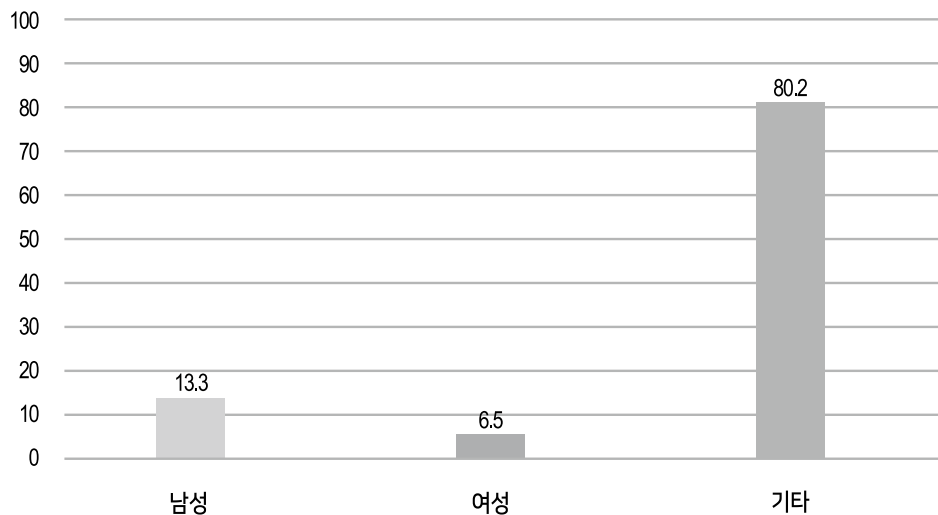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1)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 결정에 대한 인식

- 남녀 혼성 집단에서 누가 리더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644명(80.2%)은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107명(13.3%)은 ‘남성’, 52명(6.5%)은 ‘여성’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19.8%는 고정 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구분	N	%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남성	107	13.3
	여성	52	6.5
	기타	644	80.2
	합계	803	100.0



[그림 15]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은 여성(82.7%)이 남성(19.8%)에 비해 높았고, 남성은 ‘남성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19.8%), 여성은 ‘여성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9.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리더에 대한 고정 관념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2.859,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이성애(80.9%), 아직 잘 모르겠음(76.5%), 양성애(76.2%), 동성애 등 기타(65.0%) 학생 순으로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의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동성애 등 기타 학생은 ‘남성’(20.0%)이, 양성애 학생은 ‘여성’(23.8%)이 리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정관념을 보여, 리더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17.326, p<.01$).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86.2%), 간호대학(85.0%), 사회과학대학(83.3%), 경영대학(82.7%), 대학원(81.4%), 정보통신대학(80.4%) 순으로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이 학부 4, 5학년(81.4%)과 학부 2학년(81.4%), 대학원(81.4%), 학부 1학년(81.1%)이 학부 3학년(72.7%)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남녀 혼성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

구분		남성	여성	기타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71 (19.8)	11 (3.1)	276 (77.1)	358 (100.0)	32.859*** (.000)
	여성	36 (8.1)	41 (9.2)	368 (82.7)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98 (13.5)	41 (5.6)	589 (80.9)	728 (100.0)	17.326** (.008)
	양성애	0 (.0)	5 (23.8)	16 (76.2)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5 (14.7)	3 (8.8)	26 (76.5)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4 (20.0)	3 (15.0)	13 (6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5 (18.4)	4 (2.9)	107 (78.7)	136 (100.0)	23.446 (.174)
	정보통신대학	14 (15.2)	4 (4.3)	74 (80.4)	92 (100.0)	
	자연과학대학	3 (10.3)	1 (3.4)	25 (86.2)	29 (100.0)	
	경영대학	5 (9.6)	4 (7.7)	43 (82.7)	52 (100.0)	
	인문대학	7 (17.9)	6 (15.4)	26 (66.7)	39 (100.0)	
	사회과학대학	6 (10.0)	4 (6.7)	50 (83.3)	60 (100.0)	
	간호대학	1 (5.0)	2 (10.0)	17 (85.0)	20 (100.0)	
	약학대학	1 (12.5)	2 (25.0)	5 (62.5)	8 (100.0)	
	의과대학	2 (28.6)	1 (14.3)	4 (57.1)	7 (100.0)	
	대학원	43 (11.9)	24 (6.7)	293 (81.4)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3 (11.7)	8 (7.2)	90 (81.1)	111 (100.0)	5.783 (.672)
	학부 2학년	13 (13.4)	5 (5.2)	79 (81.4)	97 (100.0)	
	학부 3학년	21 (19.1)	9 (8.2)	80 (72.7)	110 (100.0)	
	학부 4, 5학년	17 (13.6)	6 (4.8)	102 (81.6)	125 (100.0)	
	대학원	43 (11.9)	24 (6.7)	293 (81.4)	360 (100.0)	
전체		107 (13.3)	52 (6.5)	644 (80.2)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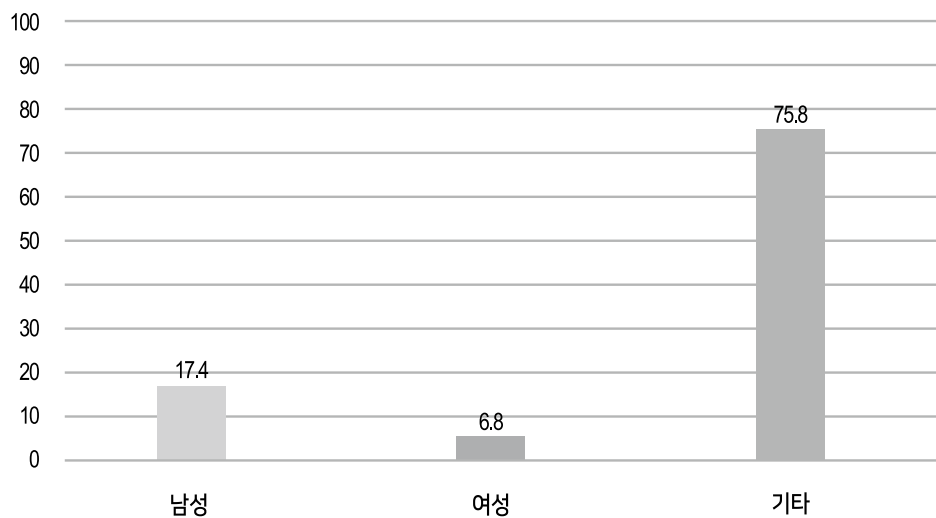
** $p<.01$, *** $p<.001$

(2) 성관계 시 성별에 따른 주도 결정에 대한 인식

□ 성관계 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608명(75.8%)은 ‘남녀 누가 주도 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기타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140명(17.4%)은 ‘남성’이, 55명(6.8%)은 ‘여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24.2%는 고정 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관계 시 주도자에 대한 인식

구분	N	%	
성관계 시 주도자	남성	140	17.4
	여성	55	6.8
	기타	608	75.8
	합계	803	100.0



[그림 1] 성관계 시 주도자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남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이 남성(74.0%)에 비해 여성(77.1%)이 다소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적 지향별로는 ‘남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이 아직 잘 모르겠음(79.4%), 양성애(76.3%), 이성애(75.8%), 동성애 등 기타 (65.0%) 학생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남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은 경영대학(82.7%), 사회과학대학(80.0%), 자연과학대학(79.3%), 대학원(78.9%) 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의과대학(42.9%), 약학대학(37.5%), 간호대학(35.0%) 학생들은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518$,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남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 비율은 대학원(78.9%), 학부 1학년(78.4%), 학부 2학년(74.2%), 학부 3, 4학년(73.6%), 학부 3학년(66.4%)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관계 시 주도자

구분	남성	여성	기타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62 (17.3)	31 (8.7)	265 (74.0)	3.339 (.188)	
	여성	78 (17.5)	24 (5.4)	343 (77.1)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31 (18.0)	45 (6.2)	552 (75.8)	9.359 (.154)	
	양성애	2 (9.5)	3 (14.3)	16 (76.2)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4 (11.8)	3 (8.8)	27 (79.4)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3 (15.0)	4 (20.0)	13 (6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8 (20.6)	11 (8.1)	97 (71.3)	29.518* (.042)	
	정보통신대학	16 (17.4)	9 (9.8)	67 (72.8)		92 (100.0)
	자연과학대학	5 (17.2)	1 (3.4)	23 (79.3)		29 (100.0)
	경영대학	9 (17.3)	0 (.0)	43 (82.7)		52 (100.0)
	인문대학	12 (30.8)	2 (5.1)	25 (64.1)		39 (100.0)
	사회과학대학	6 (10.0)	6 (10.0)	48 (80.0)		60 (100.0)
	간호대학	7 (35.0)	0 (.0)	13 (65.0)		20 (100.0)
	약학대학	3 (37.5)	0 (.0)	5 (62.5)		8 (100.0)
	의과대학	3 (42.9)	1 (14.3)	3 (42.9)		7 (100.0)
	대학원	51 (14.2)	25 (6.9)	284 (78.9)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9 (17.1)	5 (4.5)	87 (78.4)	11.388 (.181)	
	학부 2학년	16 (16.5)	9 (9.3)	72 (74.2)		97 (100.0)
	학부 3학년	28 (25.5)	9 (8.2)	73 (66.4)		110 (100.0)
	학부 4, 5학년	26 (20.8)	7 (5.6)	92 (73.6)		125 (100.0)
	대학원	51 (14.2)	25 (6.9)	284 (78.9)		360 (100.0)
전체	140 (17.4)	55 (6.8)	608 (75.8)	803 (100.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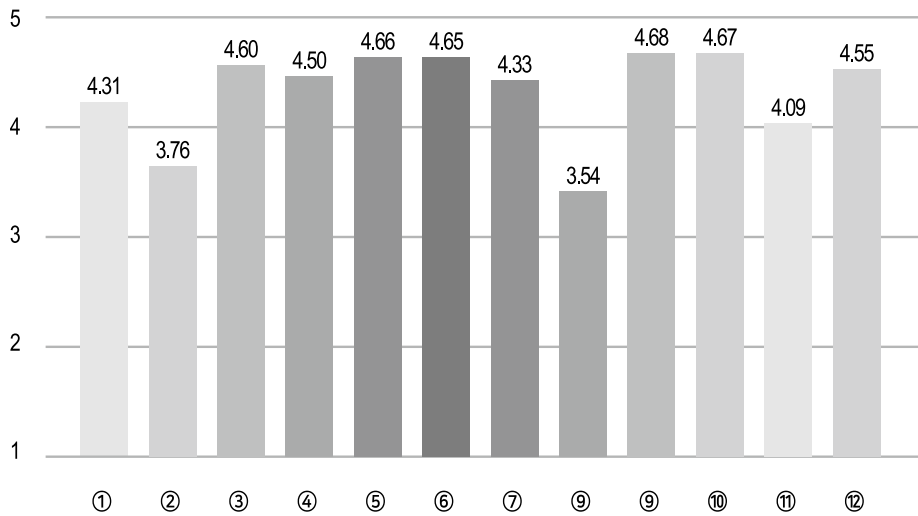
4) 성폭력에 대한 인식

-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는 성폭력을 당할 수 없다*’(4.68),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4.67),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 구별 없이 일어난다(4.66)’,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4.65)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4.60) 순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성폭력은 대부분 힘과 권력의 상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3.64)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4.3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성폭력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① 사회 구성원의 성적 지향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4.31	.86
② *데이트 중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킨쉽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3.76	1.35
③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4.60	.86
④ SNS 단체대화방에서의 성적인 농담, 타인의 외모 평가 등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4.50	.98
⑤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 구별 없이 일어난다	4.66	.73
⑥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4.65	.82
⑦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4.33	.87
⑧ 성폭력은 대부분 힘과 권력의 상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3.54	1.17
⑨ *남자는 성폭력을 당할 수 없다	4.68	.74
⑩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4.67	.69
⑪ *성폭력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옷차림에도 원인이 있다	4.09	1.13
⑫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4.55	.84
전체	4.36	.45

*역채점 문항



[그림 17]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여성(4.50)이 남성(4.19)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t=-.9976, p<.001$),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4.63)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겠음(4.37)과 이성애(4.36), 동성애 등 기타(4.28)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 지향별 차이를 보였다($F=2.925, p<.05$).

소속별로는 간호대학(4.59)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의과대학(4.17)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319,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4.37), 학부 4, 5학년(4.38), 학부 1학년(4.37), 학부 2학년(4.37), 학부 3학년(4.31) 순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7〉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성	358	4.19	.49	-9.976***	.000
	여성	445	4.50	.35		
성적 지향	이성애	728	4.36 ^b	.44	2.925*	.033
	양성애	21	4.63 ^a	.23		
	아직 잘 모르겠음	34	4.37 ^b	.45		
	기타	20	4.28 ^b	.80		
소속	공과대학	136	4.27 ^{bc}	.52	2.319*	.014
	정보통신대학	92	4.33 ^b	.35		
	자연과학대학	29	4.26 ^{bc}	.55		
	경영대학	52	4.40 ^b	.45		
	인문대학	39	4.45 ^b	.28		
	사회과학대학	60	4.48 ^{ab}	.37		
	간호대학	20	4.59 ^a	.28		
	약학대학	8	4.48 ^{ab}	.46		
	의과대학	7	4.17 ^c	.69		
	대학원	360	4.37 ^b	.45		
학년	학부 1학년	111	4.37	.41	.400	.809
	학부 2학년	97	4.37	.46		
	학부 3학년	110	4.31	.50		
	학부 4, 5학년	125	4.38	.41		
	대학원	360	4.37	.45		
	전체	803	4.36	.45		

* $p < .05$, *** $p < .001$

3. 인권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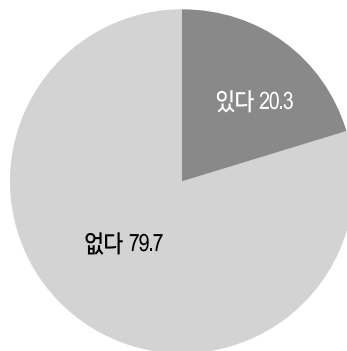
1) 학교생활 중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1)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163명(20.3%)의 학생들이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N	%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 경험	있음	163	20.3
	없음	640	79.7
	합계	803	100.0



[그림 18]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성별로는 여성(22.0%)이 남성(18.2%)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50.0%)와 양성애(38.1%)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해 아직 잘 모르거나(20.6%) 이성애(19.0%)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829, p<.01$).

소속별로는 의과대학(42.9%), 인문대학(28.2%), 대학원(24.4%), 자연과학대학(24.1%) 학생 순으로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고, 경영대학 학생들은 5.8%만이 학교에서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속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170,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24.4%), 학부 3학년(23.6%), 학부 4, 5학년(18.4%), 학부 1학년(13.5%), 학부 2학년(11.3%) 순으로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2.831, p<.05$).

〈표 39〉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65 (18.2)	293 (81.8)	358 (100.0)	1.833 (.176)
	여성	98 (22.0)	347 (78.0)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38 (19.0)	590 (81.0)	728 (100.0)	15.829** (.001)
	양성애	8 (38.1)	13 (61.9)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7 (20.6)	27 (79.4)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10 (50.0)	10 (50.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0 (14.7)	116 (85.3)	136 (100.0)	20.170* (.017)
	정보통신대학	14 (15.2)	78 (84.8)	92 (100.0)	
	자연과학대학	7 (24.1)	22 (75.9)	29 (100.0)	
	경영대학	3 (5.8)	49 (94.2)	52 (100.0)	
	인문대학	11 (28.2)	28 (71.8)	39 (100.0)	
	사회과학대학	13 (21.7)	47 (78.3)	60 (100.0)	
	간호대학	2 (10.0)	18 (90.0)	20 (100.0)	
	약학대학	2 (25.0)	6 (75.0)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88 (24.4)	272 (75.6)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5 (13.5)	96 (86.5)	111 (100.0)	12.831* (.012)
	학부 2학년	11 (11.3)	86 (88.7)	97 (100.0)	
	학부 3학년	26 (23.6)	84 (76.4)	110 (100.0)	
	학부 4, 5학년	23 (18.4)	102 (81.6)	125 (100.0)	
	대학원	88 (24.4)	272 (75.6)	360 (100.0)	
전체		163 (20.3)	640 (79.7)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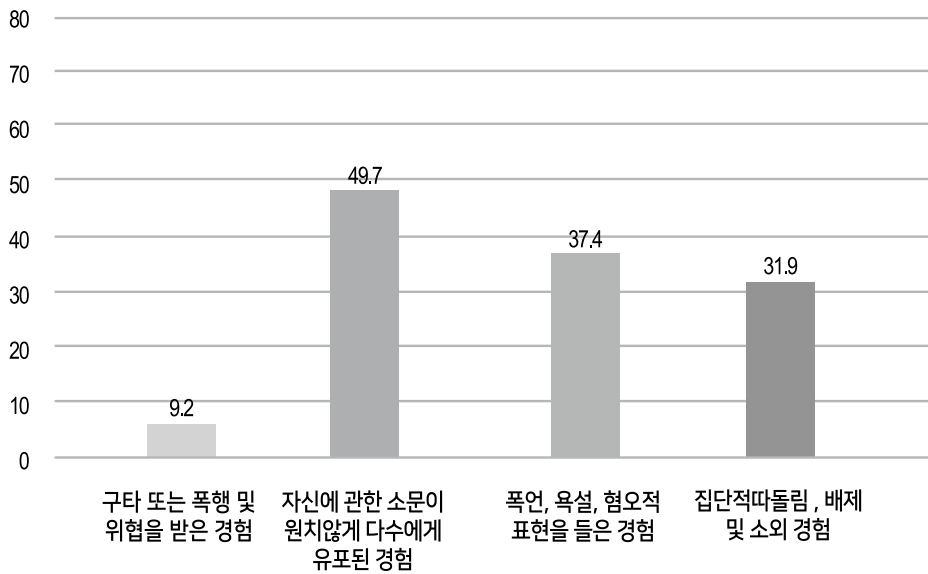
* $p<.05$, ** $p<.01$

□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침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자신에 관한 소문이 원치 않게 다수에게 유포된 경험’이 있는 학생이 81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언, 욕설, 혐오적 표현을 들은 경험’ 61명(37.4%), ‘집단적 따돌림, 배제 및 소외 경험’ 52명(31.9%), ‘구타 또는 폭행 및 위협을 받은 경험’ 15명(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 침해 내용

(복수응답: N=163)

구분	N	%
구타 또는 폭행 및 위협을 받은 경험	15	9.2
자신에 관한 소문이 원치 않게 다수에게 유포된 경험	81	49.7
폭언, 욕설, 혐오적 표현을 들은 경험	61	37.4
집단적 따돌림, 배제 및 소외 경험	52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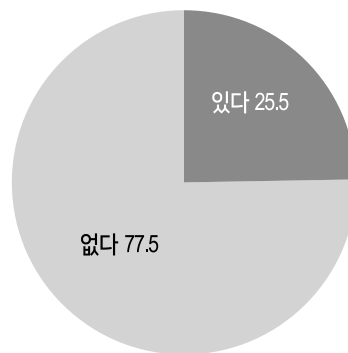
[그림 19] 학교생활 중 신체 안전 및 인격권 침해 내용

(2)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205명(25.5%)의 학생들이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N	%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다	205	25.5
	없다	598	74.5
	합계	803	100.0



〔그림 20〕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성별로는 여성(29.2%)이 남성(20.9%)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자유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126, p<.01$).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55.0%)와 양성애(48.6%) 학생들이 이성애(24.0%)와 아직 잘 모르겠다(26.5%)는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자유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5.393, p<.01$).

소속별로는 의과대학(42.9%), 약학대학(37.5%), 간호대학(30.0%), 대학원(29.7%), 자연과학대학(27.6%) 학생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자유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대학(17.4%)과 경영대학(17.3%) 학생들이 자유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29.7%), 학부 4, 5학년(26.4%), 학부 2학년(23.7%), 학부 3학년(23.6%), 학부 1학년(14.4%)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자유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0.968, p<.05$).

〈표 4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N (%)	χ ² (p)
	N (%)	N (%)	N (%)	N (%)		
성별	남성	75 (20.9)	283 (79.1)	358 (100.0)	7.126** (.008)	
	여성	130 (29.2)	315 (70.8)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75 (24.0)	553 (76.0)	728 (100.0)	15.393** (.002)	
	양성애	10 (47.6)	11 (52.4)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9 (26.5)	25 (73.5)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11 (55.0)	9 (4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6 (19.1)	110 (80.9)	136 (100.0)	13.494 (.141)	
	정보통신대학	16 (17.4)	76 (82.6)	92 (100.0)		
	자연과학대학	8 (27.6)	21 (72.4)	29 (100.0)		
	경영대학	9 (17.3)	43 (82.7)	52 (100.0)		
	인문대학	11 (28.2)	28 (71.8)	39 (100.0)		
	사회과학대학	16 (26.7)	44 (73.3)	60 (100.0)		
	간호대학	6 (30.0)	14 (70.0)	20 (100.0)		
	약학대학	3 (37.5)	5 (62.5)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107 (29.7)	253 (70.3)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6 (14.4)	95 (85.6)	111 (100.0)	10.968* (.027)	
	학부 2학년	23 (23.7)	74 (76.3)	97 (100.0)		
	학부 3학년	26 (23.6)	84 (76.4)	110 (100.0)		
	학부 4, 5학년	33 (26.4)	92 (73.6)	125 (100.0)		
	대학원	107 (29.7)	253 (70.3)	360 (100.0)		
전체	205 (25.5)	598 (74.5)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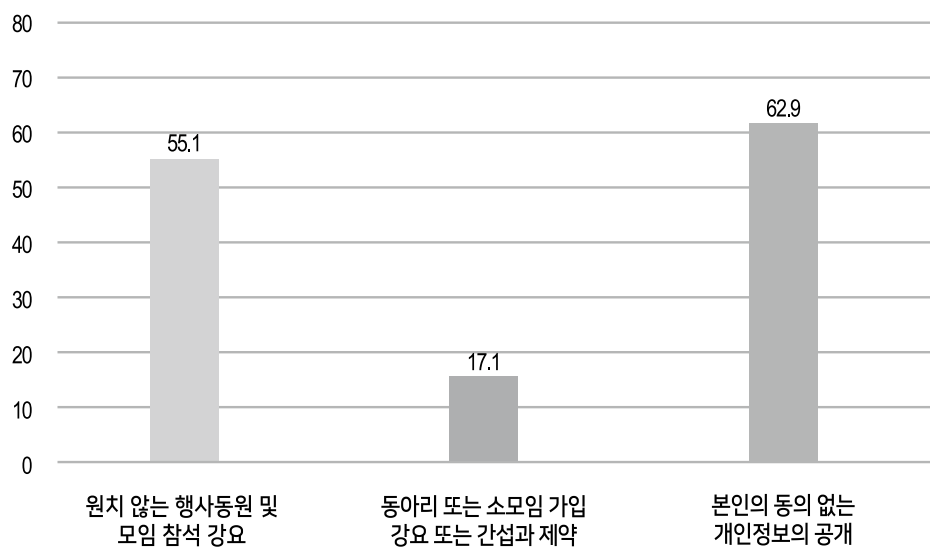
*p<.05, **p<.01

□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침해 내용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당한 학생이 129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치 않는 행사 동원 및 모임 참석 강요’ 113명 (55.1%), ‘동아리 또는 소모임 가입 강요 또는 간섭과 제약’ 35명(17.1%)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내용

(중복응답: N=205)

		구분	N	%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내용		원치 않는 행사 동원 및 모임 참석 강요	113	55.1
		동아리 또는 소모임 가입 강요 또는 간섭과 제약	35	17.1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개	129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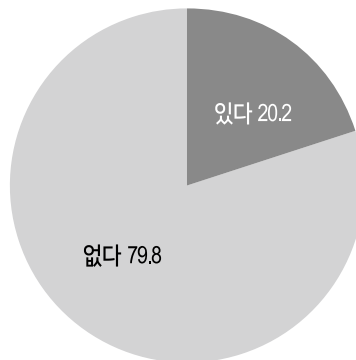
[그림 21] 학교생활 중 자유권을 침해받은 내용

(3)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162명(20.2%)의 학생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N	%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다	162	20.2
		없다	641	79.8
		합계	803	100.0



[그림 22]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성별로는 여성(22.5%)이 남성(17.3%)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평등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61.9%)와 동성애 등 기타(40.0%) 학생들이 이성애(18.0%)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평등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1.539, p<.001$).

소속별로는 의과대학(42.9%), 대학원(25.3%), 간호대학(25.0%), 사회과학대학(21.7%), 인문대학(20.5%) 학생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평등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고, 경영대학 학생들은 7.7%만이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8.691, p<.05$).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25.3%)과 학부 4, 5학년(21.6%), 학부 3학년(17.3%), 학부 2학년(14.4%), 학부 1학년(9.9%)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평등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5.802, p<.01$).

〈표 4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62 (17.3)	296 (82.7)	358 (100.0)	3.272 (.070)
	여성	100 (22.5)	345 (77.5)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31 (18.0)	597 (82.0)	728 (100.0)	31.539*** (.000)
	양성애	13 (61.9)	8 (38.1)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10 (29.4)	24 (70.6)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8 (40.0)	12 (60.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0 (14.7)	116 (85.3)	136 (100.0)	18.691* (.028)
	정보통신대학	15 (16.3)	77 (83.7)	92 (100.0)	
	자연과학대학	4 (13.8)	25 (86.2)	29 (100.0)	
	경영대학	4 (7.7)	48 (92.3)	52 (100.0)	
	인문대학	8 (20.5)	31 (79.5)	39 (100.0)	
	사회과학대학	13 (21.7)	47 (78.3)	60 (100.0)	
	간호대학	2 (10.0)	18 (90.0)	20 (100.0)	
	약학대학	2 (25.0)	6 (75.0)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91 (25.3)	269 (74.7)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1 (9.9)	100 (90.1)	111 (100.0)	15.802** (.003)
	학부 2학년	14 (14.4)	83 (85.6)	97 (100.0)	
	학부 3학년	19 (17.3)	91 (82.7)	110 (100.0)	
	학부 4, 5학년	27 (21.6)	98 (78.4)	125 (100.0)	
	대학원	91 (25.3)	269 (74.7)	360 (100.0)	
전체		162 (20.2)	641 (79.8)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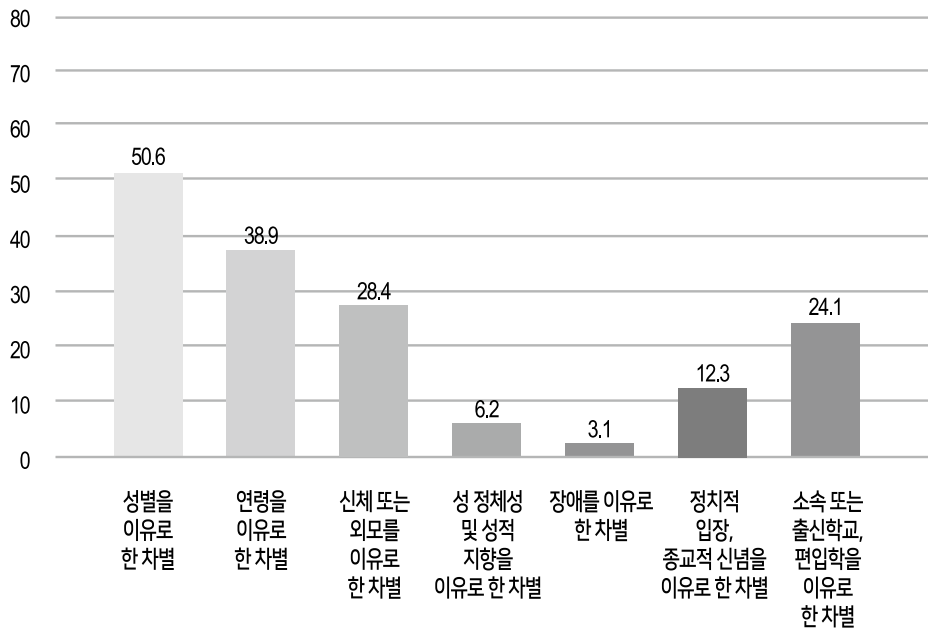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침해 내용으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82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63명(38.9%), ‘신체 또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 46명(28.4%), ‘소속 또는 출신학교, 편입학을 이유로 한 차별’ 39명(24.1%),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10명(6.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5명(3.1%),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 20명(12.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내용

(중복응답: N=162)

구분	N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82	50.6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63	38.9
신체 또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	46	28.4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10	6.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5	3.1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	20	12.3
소속 또는 출신학교, 편입학을 이유로 한 차별	39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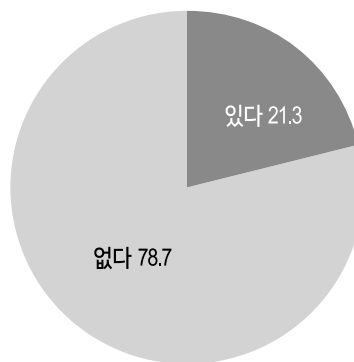
[그림 23] 학교생활 중 평등권을 침해받은 내용

(4)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171명(21.3%)의 학생들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구분	N	%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있다	21.3
	없다	78.7
	합계	100.0



[그림 24]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성별로는 여성(25.2%)이 남성(16.5%)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8.935, p<.01$).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70.0%)와 양성애(33.3%) 학생들이 이성애(19.5%)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x^2=31.615, p<.001$).

소속별로는 약학대학(37.5%), 인문대학(25.6%), 자연과학대학(24.1%), 정보통신대학(23.9%) 학생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의과대학(14.3%) 이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학부 3학년(25.5%), 학부 4, 5학년(24.8%), 대학원(21.7%), 학부 2학년(21.6%), 학부 1학년(11.7%) 순으로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8〉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

구분		있음	없음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59 (16.5)	299 (83.5)	358 (100.0)	8.935** (.003)
	여성	112 (25.2)	333 (74.8)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42 (19.5)	586 (80.5)	728 (100.0)	31.615*** (.000)
	양성애	7 (33.3)	14 (66.7)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8 (23.5)	26 (76.5)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14 (70.0)	6 (30.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24 (17.6)	112 (82.4)	136 (100.0)	4.639 (.865)
	정보통신대학	22 (23.9)	70 (76.1)	92 (100.0)	
	자연과학대학	7 (24.1)	22 (75.9)	29 (100.0)	
	경영대학	9 (17.3)	43 (82.7)	52 (100.0)	
	인문대학	10 (25.6)	29 (74.4)	39 (100.0)	
	사회과학대학	14 (23.3)	46 (76.7)	60 (100.0)	
	간호대학	3 (15.0)	17 (85.0)	20 (100.0)	
	약학대학	3 (37.5)	5 (62.5)	8 (100.0)	
	의과대학	1 (14.3)	6 (85.7)	7 (100.0)	
	대학원	78 (21.7)	282 (78.3)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13 (11.7)	98 (88.3)	111 (100.0)	8.171 (.086)
	학부 2학년	21 (21.6)	76 (78.4)	97 (100.0)	
	학부 3학년	28 (25.5)	82 (74.5)	110 (100.0)	
	학부 4, 5학년	31 (24.8)	94 (75.2)	125 (100.0)	
	대학원	78 (21.7)	282 (78.3)	360 (100.0)	
전체		171 (21.3)	632 (78.7)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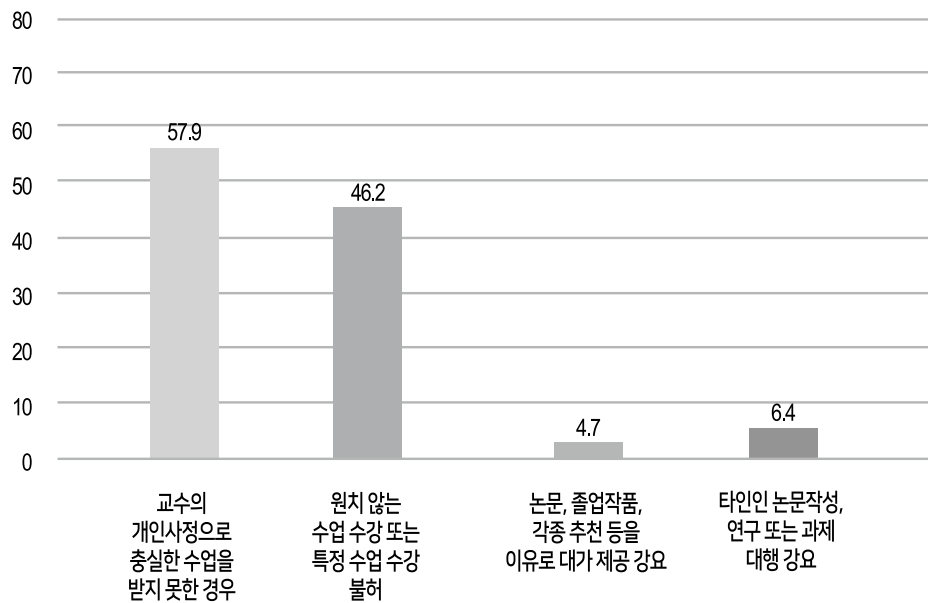
** $p < .01$, *** $p < .001$

□ 학교생활 중에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권리 침해 내용은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충실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99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치 않는 수업 수강 또는 특정 수업 수강 불허’ 79명(46.2%), ‘논문, 졸업작품, 각종 추천 등을 이유로 대가 제공 강요’ 8명(4.7%), ‘타인인 논문작성, 연구 또는 과제 대행 강요’ 11명(6.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

(중복응답: N=171)

구분		N	%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충실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99	57.9
	원치 않는 수업 수강 또는 특정 수업 수강 불허	79	46.2
	논문, 졸업작품, 각종 추천 등을 이유로 대가 제공 강요	8	4.7
	타인인 논문작성, 연구 또는 과제 대행 강요	1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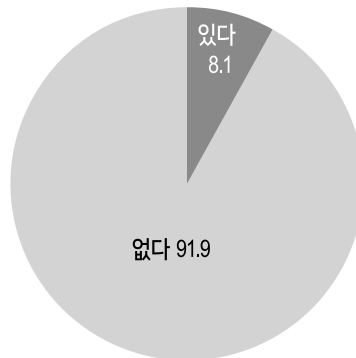
[그림 25] 학교생활 중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

(5)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65명(8.1%)의 학생들이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구분		N	%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다	65	8.1
	없다	738	91.9
	합계	803	100.0



[그림 26]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

성별로는 여성(8.5%)이 남성(7.5%)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30.0%) 학생들이 양성애(4.8%)와 이성애(7.4%)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를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4.278$, $p<.01$).

소속별로는 의과대학(28.6%) 학생들이 대학원생과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114$, $p<.01$).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12.8%) 학생들이 학부 4, 5학년(2.4%)과 학부 1학년(3.6%), 학부 3학년(5.5%), 학부 1학년(6.2%)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577$, $p<.001$).

〈표 5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27 (7.5)	331 (92.5)	358 (100.0)	.265 (.606)
	여성	38 (8.5)	407 (91.5)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54 (7.4)	674 (92.6)	728 (100.0)	14.278** (.003)
	양성애	1 (4.8)	20 (95.2)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4 (11.8)	30 (88.2)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6 (30.0)	14 (70.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10 (7.4)	126 (92.6)	136 (100.0)	29.114** (.001)
	정보통신대학	2 (2.2)	90 (97.8)	92 (100.0)	
	자연과학대학	2 (6.9)	27 (93.1)	29 (100.0)	
	경영대학	1 (1.9)	51 (98.1)	52 (100.0)	
	인문대학	1 (2.6)	38 (97.4)	39 (100.0)	
	사회과학대학	1 (1.7)	59 (98.3)	60 (100.0)	
	간호대학	0 (0)	20 (100.0)	20 (100.0)	
	약학대학	0 (0)	8 (100.0)	8 (100.0)	
	의과대학	2 (28.6)	5 (71.4)	7 (100.0)	
	대학원	46 (12.8)	314 (87.2)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4 (3.6)	107 (96.4)	111 (100.0)	20.577*** (.000)
	학부 2학년	6 (6.2)	91 (93.8)	97 (100.0)	
	학부 3학년	6 (5.5)	104 (94.5)	110 (100.0)	
	학부 4, 5학년	3 (2.4)	122 (97.6)	125 (100.0)	
	대학원	46 (12.8)	314 (87.2)	360 (100.0)	
전체		65 (8.1)	738 (91.9)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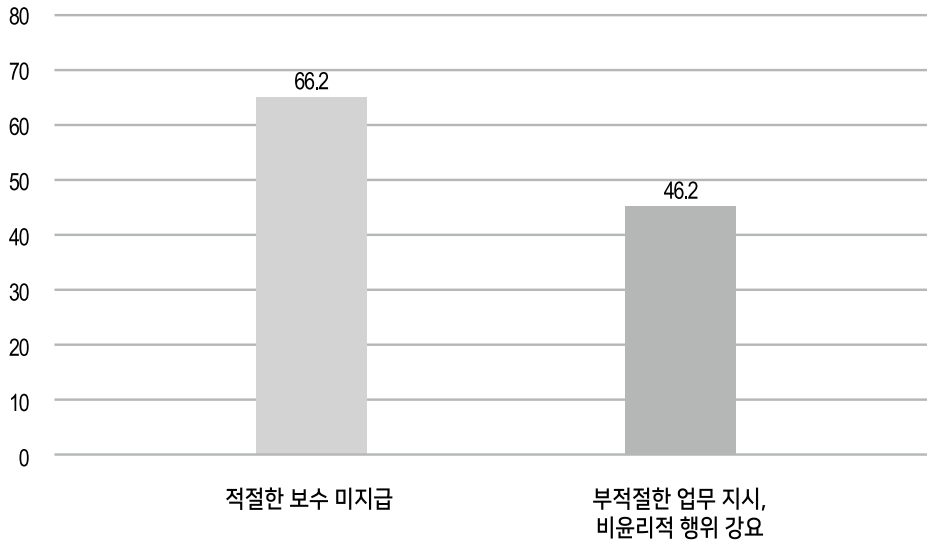
* $p < .01$, *** $p < .001$

□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침해 내용은 ‘적절한 보수 미지급’이 43명 (66.2%)으로 ‘부적절한 업무 지시, 비윤리적 행위 강요’ 30명(46.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학교생활 중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중복응답: N=65)

구분		N	%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적절한 보수 미지급	43	66.2
	부적절한 업무 지시, 비윤리적 행위 강요	30	46.2



[그림 27] 학교생활 중에 노동권을 침해받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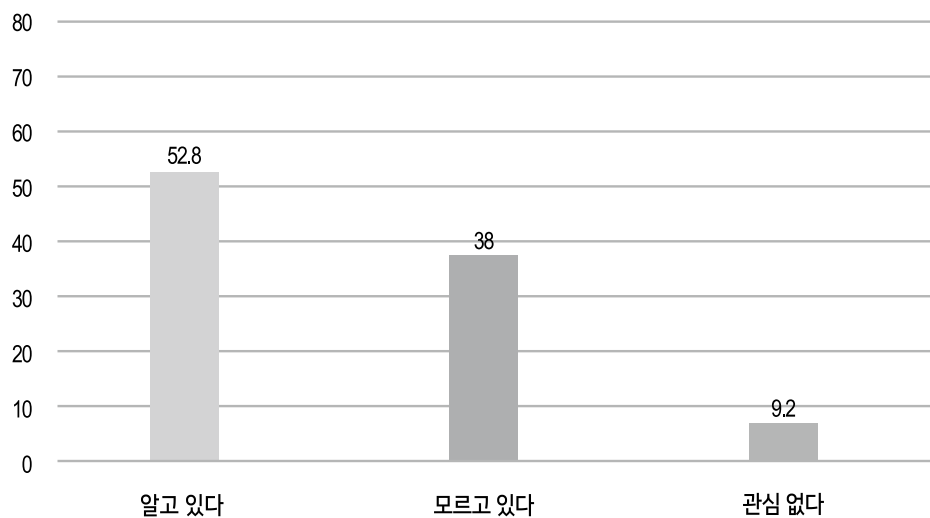
2) 인권 침해 실태 및 대처

(1) 인권 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4명(52.8%)이었고, ‘모르고 있다’가 305명(38.0%)이었으며, 74명(9.2%)은 관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
인권 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424	52.8
	모르고 있다	305	38.0
	관심 없다	74	9.2
	합계	803	100.0



[그림 28]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성별로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60.9%)이 여성(46.3%)에 비해 높았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46.5%)이 남성(27.4%)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1.590,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57.1%), 이성애(53.4%), 동성애 등 기타(45.0%), 아직 잘 모르겠음(41.2%) 등의 학생 순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로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정보통신대학(57.6%), 대학원(55.3%), 인문대학(53.8%), 사회과학대학(53.3%), 공과대학(52.3%) 학생 순으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31.0%)과 약학대학(37.5%) 학생들의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원(55.3%), 학부 1학년(53.2%), 학부 3학년(52.7%), 학부 2학년(51.5%), 학부 4, 5학년(46.4%)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

구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관심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성	218	(60.9)	98	(27.4)	42	(11.7)	358	(100.0)	31.590*** (.000)
	여성	206	(46.3)	207	(46.5)	32	(7.2)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389	(53.4)	274	(37.6)	65	(8.9)	728	(100.0)	6.847 (.335)
	양성애	12	(57.1)	9	(42.9)	0	(.0)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14	(41.2)	14	(41.2)	6	(17.6)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9	(45.0)	8	(40.0)	3	(1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71	(52.2)	49	(36.0)	16	(11.8)	136	(100.0)	18.200 (.443)
	정보통신대학	53	(57.6)	28	(30.4)	11	(12.0)	92	(100.0)	
	자연과학대학	9	(31.0)	16	(55.2)	4	(13.8)	29	(100.0)	
	경영대학	24	(46.2)	21	(40.4)	7	(13.5)	52	(100.0)	
	인문대학	21	(53.8)	16	(41.0)	2	(5.1)	39	(100.0)	
	사회과학대학	32	(53.3)	25	(41.7)	3	(5.0)	60	(100.0)	
	간호대학	9	(45.0)	8	(40.0)	3	(15.0)	20	(100.0)	
	약학대학	3	(37.5)	5	(62.5)	0	(.0)	8	(100.0)	
	의과대학	3	(42.9)	3	(42.9)	1	(14.3)	7	(100.0)	
	대학원	199	(55.3)	134	(37.2)	27	(7.5)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59	(53.2)	43	(38.7)	9	(8.1)	111	(100.0)	6.613 (.579)
	학부 2학년	50	(51.5)	37	(38.1)	10	(10.3)	97	(100.0)	
	학부 3학년	58	(52.7)	42	(38.2)	10	(9.1)	110	(100.0)	
	학부 4, 5학년	58	(46.4)	49	(39.2)	18	(14.4)	125	(100.0)	
	대학원	199	(55.3)	134	(37.2)	27	(7.5)	360	(100.0)	
전체	424	(52.8)	305	(38.0)	74	(9.2)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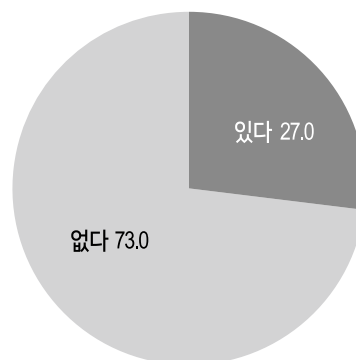
*** $p < .001$

(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 지난 1년 동안 217명(27.0%)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있다	217	27.0
	없다	586	73.0
	합계	803	100.0



[그림 2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성별로는 여성(31.5%)이 남성(21.5%)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964, p<.01$).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55.0%)와 양성애(47.6%) 학생들이 이성애(25.8%)와 아직 잘 모르겠다(23.5%)는 학생들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196, p<.01$).

소속별로는 의과대학(42.9%), 인문대학(38.5%), 약학대학(37.5%), 간호대학(30.0%) 학생 순으로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대학(19.6%) 학생들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28.9%), 학부 3학년(30.9%), 학부 4, 5학년(28.0%), 학부 1학년(21.6%), 학부 2학년(20.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

구분	있다			없다			χ ² (p)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77 (21.5)	281 (78.5)	358 (100.0)	9.964** (.002)		
	여성	140 (31.5)	305 (68.5)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88 (25.8)	540 (74.2)	728 (100.0)	13.196** (.004)		
	양성애	10 (47.6)	11 (52.4)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8 (23.5)	26 (76.5)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11 (55.0)	9 (4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32 (23.5)	104 (76.5)	136 (100.0)	8.670 (.468)		
	정보통신대학	18 (19.6)	74 (80.4)	92 (100.0)			
	자연과학대학	7 (24.1)	22 (75.9)	29 (100.0)			
	경영대학	12 (23.1)	40 (76.9)	52 (100.0)			
	인문대학	15 (38.5)	24 (61.5)	39 (100.0)			
	사회과학대학	17 (28.3)	43 (71.7)	60 (100.0)			
	간호대학	6 (30.0)	14 (70.0)	20 (100.0)			
	약학대학	3 (37.5)	5 (62.5)	8 (100.0)			
	의과대학	3 (42.9)	4 (57.1)	7 (100.0)			
	대학원	104 (28.9)	256 (71.1)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24 (21.6)	87 (78.4)	111 (100.0)	5.198 (.268)		
	학부 2학년	20 (20.6)	77 (79.4)	97 (100.0)			
	학부 3학년	34 (30.9)	76 (69.1)	110 (100.0)			
	학부 4, 5학년	35 (28.0)	90 (72.0)	125 (100.0)			
	대학원	104 (28.9)	256 (71.1)	360 (100.0)			
전체	217 (27.0)	586 (73.0)	8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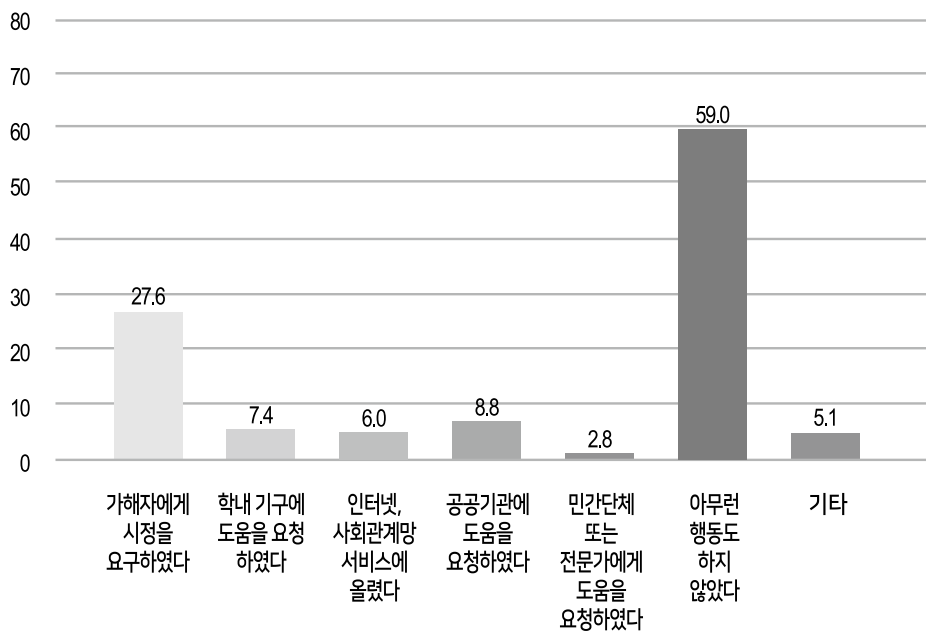
**p<.01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8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60명(27.6%) '학내 기구(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6명(7.4%),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13명(6.0%), '공공기관(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명(8.8%),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6명(2.8%), '기타' 11명(5.1%)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5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시 대응 방법

(중복응답: N=217)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시 대응방법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60	27.6
	학내 기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6	7.4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13	6.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	8.8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6	2.8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128	59.0
	기타	1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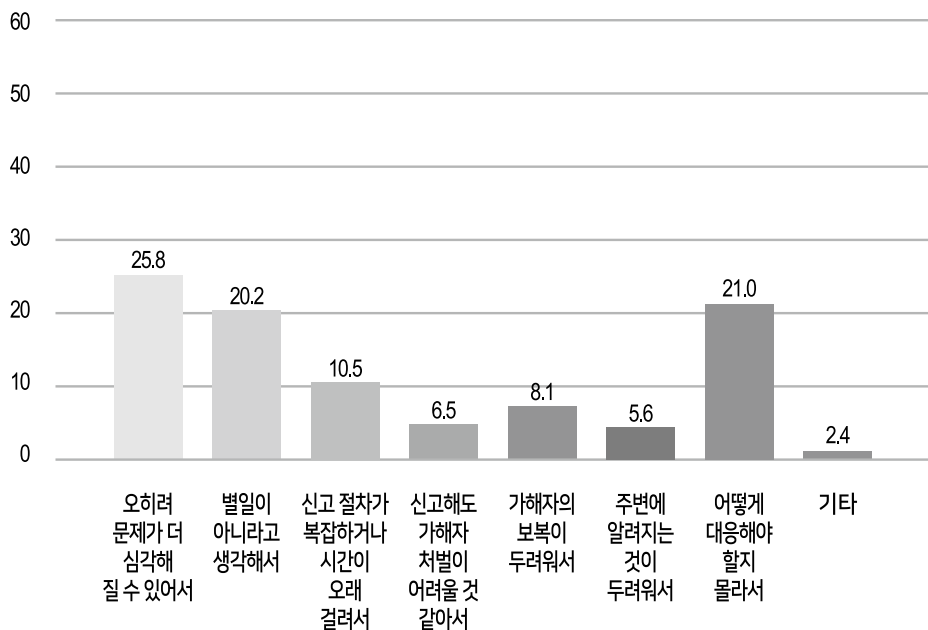


[그림 30]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시 대응 방법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26명(21.0%),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5명(20.2%),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13명(10.5%),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10명(8.1%), '신고 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8명(6.5%),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7명(5.6%), '기타' 3명(2.4%)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58〉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

구분	N	%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어서	32	25.8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5	20.2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13	10.5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8	6.5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10	8.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7	5.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26	21.0
기타	3	2.4
합계	124	100.0



[그림 31]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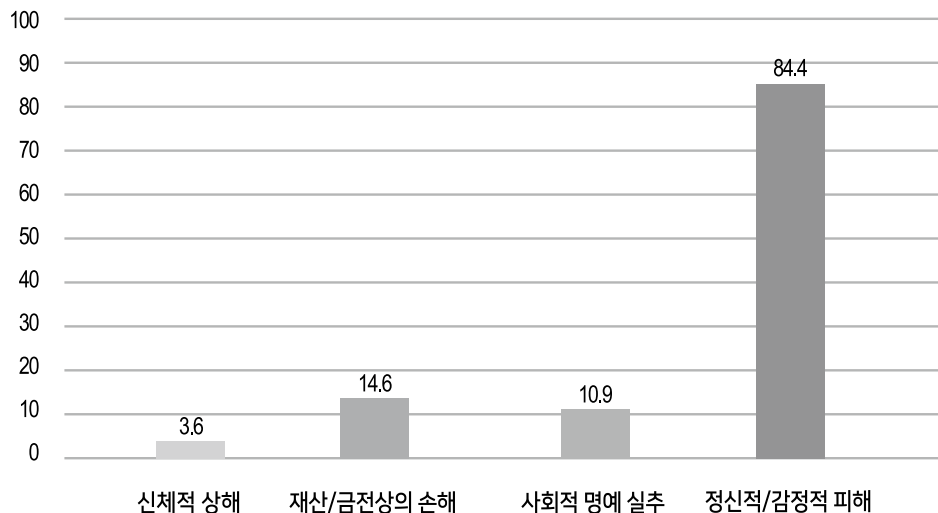
(3)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나 불이익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162명 (84.4%)의 학생들이 모욕, 분노, 울분 등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재산/금전상의 손해’ 28명(14.6%), ‘사회적 명예 실추’ 21명(10.9%), ‘기타’ 10명(5.2%), ‘신체적 상해’ 7명 (3.6%) 등 순으로 피해나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중복응답: N=192)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신체적 상해	7	3.6
	재산/금전상의 손해	28	14.6
	사회적 명예 실추	21	10.9
	정신적/감정적 피해	162	84.4
	기타	10	5.2



[그림 3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시 피해나 불이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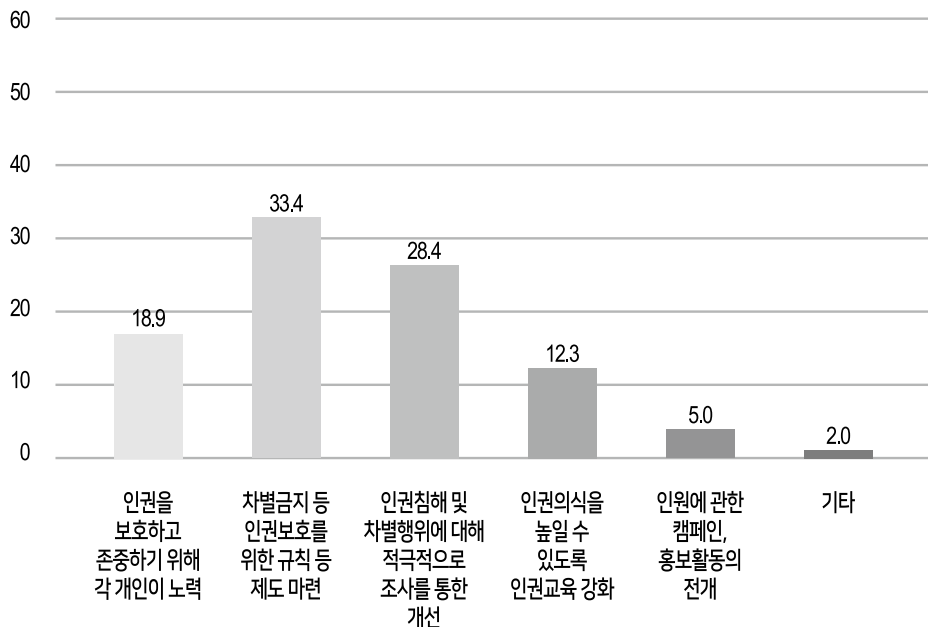
(4)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8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각 개인의 노력’152명(18.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한 개선’228명(28.4%),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99명(12.3%),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40명(5.0%), ‘기타’16명(2.0%)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60〉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구분	N	%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	152	18.9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	268	33.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한 개선	228	28.4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99	12.3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의 전개	40	5.0
기타	16	2.0
합계	803	100.0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그림 33]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성별로는 여성은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39.3%)이 남성(26.0%)에 비해 높은 반면, 남성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25.7%)이 여성(1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1.537, p<.001$).

성적 지향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양성애(57.1%)와 동성애 등 기타(55.0%) 학생들이 이성애(31.6%) 학생들에 비해 높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이성애(19.8%)와 아직 잘 모르겠다(20.6%)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이성애(29.1%) 학생들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 지향별로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278, p<.01$).

소속별로는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인문대학(51.3%), 사회과학대학(41.7%), 경영대학(40.4%) 학생들이 높은 반면, 약학대학(50.0%)과 간호대학(45.0%) 학생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의과대학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42.9%)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학부 2학년(34.1%), 학부 1학년(34.2%), 학부 4, 5학년(32.8%), 대학원(32.8%), 학부 3학년(32.8%) 순으로 비슷하게 높았고, 나머지 방법에 대한 응답 비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6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구분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	차별금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한 개선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의 전개	기타	합계	χ^2 (p)
		N(%)	N(%)	N(%)	N(%)	N(%)	N(%)	N(%)	
성별	남성	92(25.7)	93(26.0)	99(27.7)	41(11.5)	23(6.4)	10(2.8)	358(100.0)	31.537*** (.000)
	여성	60(13.5)	175(39.3)	129(29.0)	58(13.0)	17(3.8)	6(1.3)	445(100.0)	
성적 지향	이성애	144(19.8)	230(31.6)	212(29.1)	94(12.9)	33(4.5)	15(2.1)	728(100.0)	33.278*** (.004)
	양성애	0(0)	12(57.1)	5(23.8)	3(14.3)	0(0)	1(4.8)	21(100.0)	
	아직 잘 모르겠음	7(20.6)	15(44.1)	7(20.6)	2(5.9)	3(8.8)	0(0)	34(100.0)	
	동성애 등 기타	1(5.0)	11(55.0)	4(20.0)	0(0)	4(20.0)	0(0)	20(100.0)	
소속	공과대학	38(27.9)	34(25.0)	39(28.7)	14(10.3)	10(7.4)	1(7)	136(100.0)	56.023 (.126)
	정보통신대학	27(29.3)	28(30.4)	23(25.0)	10(10.9)	3(3.3)	1(1.1)	92(100.0)	
	자연과학대학	6(20.7)	10(34.5)	10(34.5)	2(6.9)	1(3.4)	0(0)	29(100.0)	
	경영대학	8(15.4)	21(40.4)	15(28.8)	6(11.5)	1(1.9)	1(1.9)	52(100.0)	
	인문대학	5(12.8)	20(51.3)	10(25.6)	2(5.1)	1(2.6)	1(2.6)	39(100.0)	
	사회과학대학	5(8.3)	25(41.7)	19(31.7)	5(8.3)	4(6.7)	2(3.3)	60(100.0)	
	간호대학	1(5.0)	8(40.0)	9(45.0)	2(10.0)	0(0)	0(0)	20(100.0)	
	약학대학	0(0)	3(37.5)	4(50.0)	1(12.5)	0(0)	0(0)	8(100.0)	
	의과대학	3(42.9)	1(14.3)	1(14.3)	2(28.6)	0(0)	0(0)	7(100.0)	
대학원	59(16.4)	118(32.8)	98(27.2)	55(15.3)	20(5.6)	10(2.8)	360(100.0)		
학년	학부 1학년	29(26.1)	38(34.2)	30(27.0)	9(8.1)	4(3.6)	1(9)	111(100.0)	46.693 (.089)
	학부 2학년	14(14.4)	37(38.1)	28(28.9)	13(13.4)	3(3.1)	2(2.1)	97(100.0)	
	학부 3학년	27(24.5)	34(30.9)	34(30.9)	7(6.4)	7(6.4)	1(9)	110(100.0)	
	학부 4, 5학년	23(18.4)	41(32.8)	38(30.4)	15(12.0)	6(4.8)	2(1.6)	125(100.0)	
	대학원	59(16.4)	118(32.8)	98(27.2)	55(15.3)	20(5.6)	10(2.8)	360(100.0)	
전체	152(18.9)	268(33.4)	228(28.4)	99(12.3)	40(5.0)	16(2.0)	803(100.0)		

p<.01, *p<.001

4. 성희롱/성폭력 실태

1)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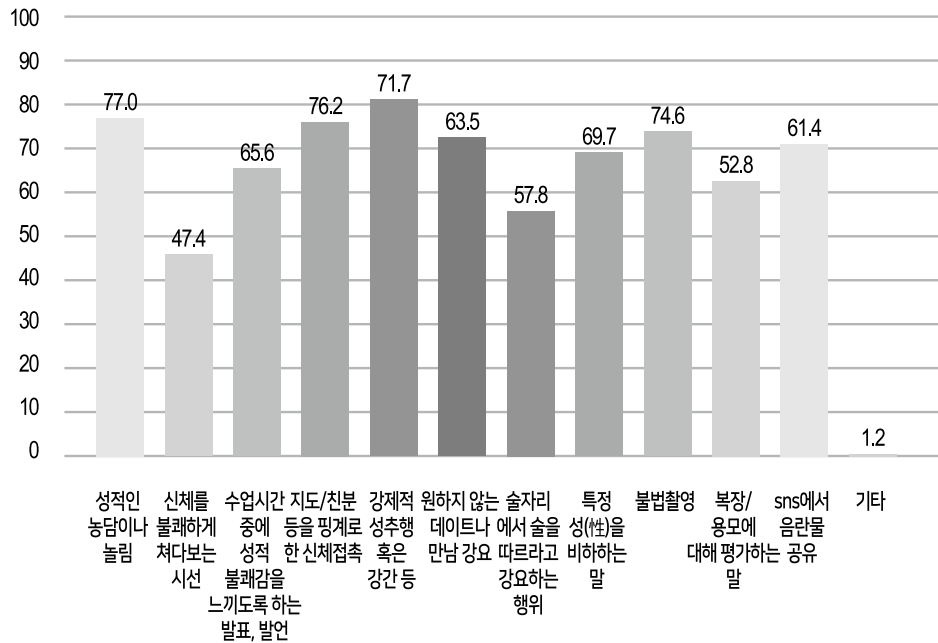
-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살펴본 결과, '성적인 농담(음담패설)이나 놀림'이 618명(7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도/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612명(76.2%), '불법촬영' 599명(74.6%), '강제적 성추행 혹은 강간(미수) 등' 576명(71.7%),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 560명(69.7%), '수업시간(온라인 수업 포함) 중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표, 발언' 527명(65.6%),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만남 강요' 510명(63.5%), 'SNS에서 음란물 공유' 493명(61.4%),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464명(57.8%), '복장/용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 424명(52.8%), '신체를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381명(47.4%), '기타' 10명(1.2%)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62〉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내용 중 중요한 이슈

(중복응답: N=803)

구분	N	%
성적인 농담이나 놀림	618	77.0
신체를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381	47.4
수업 시간 중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표, 발언	527	65.6
지도/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612	76.2
강제적 성추행 혹은 강간 등	576	71.7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만남 강요	510	63.5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464	57.8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	560	69.7
불법촬영	599	74.6
복장/용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	424	52.8
SNS에서 음란물 공유	493	61.4
기타	10	1.2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내용 중
중요한 이슈



[그림 34]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내용 중 중요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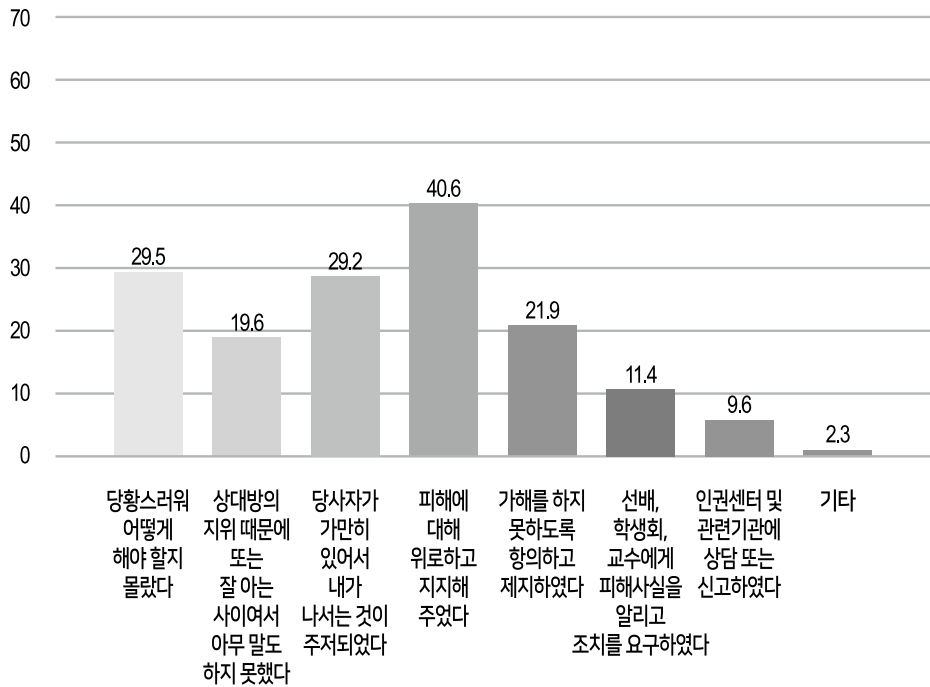
2)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응답이 139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01명(29.5%),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나서서 것이 주저되었다’ 100명(29.2%),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고 제지하였다’ 75명(21.9%),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또는 잘 아는 사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7명(19.6%), ‘선배, 학생회,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39명(11.4%),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 33명(9.6%), ‘기타’ 8명(2.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중복응답: N=342)

구분	N	%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01	29.5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또는 잘 아는 사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7	19.6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나서는 것이 주저되었다	100	29.2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	139	40.6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고 제지하였다	75	21.9
선배, 학생회,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39	11.4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	33	9.6
기타	8	2.3



[그림 35]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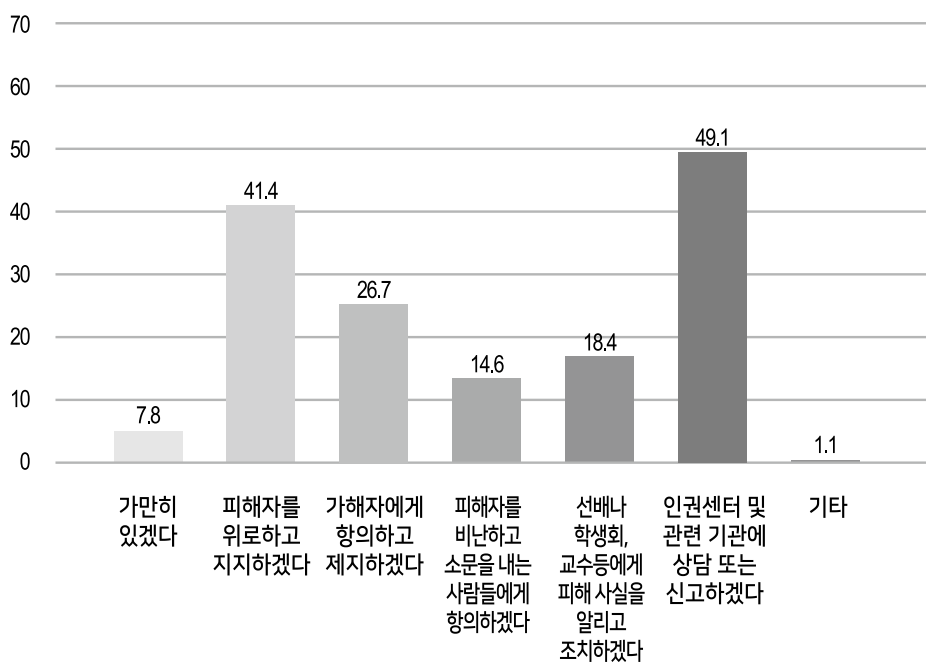
3)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374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겠다' 315명(41.4%),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제지하겠다' 203명(26.7%), '선배나 학생회, 교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하겠다' 140명(18.4%), '피해자를 비난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겠다' 111명(14.6%), '가만히 있겠다' 59명(7.8%), '기타' 8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중복응답: N=761)

구분	N	%
가만히 있겠다	59	7.8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겠다	315	41.4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제지하겠다	203	26.7
피해자를 비난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겠다	111	14.6
선배나 학생회, 교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하겠다	140	18.4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겠다	374	49.1
기타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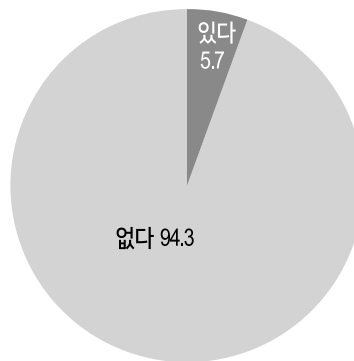
[그림 36]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4)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피해는 46명(5.7%)의 학생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구분	N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46 5.7
	없다	757 94.3
	합계	803 100.0



[그림 37]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성별로는 여성의 8.3%, 남성의 2.5%가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361, p<.001$).

성적 지향별로는 동성애 등 기타(25.0%)와 양성애(23.8%) 학생들이 이성애(4.4%)와 아직 잘 모르겠다(11.8%)는 학생들에 비해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1.156, p<.001$).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13.8%), 인문대학(7.7%), 대학원(7.5%), 사회과학대학(5.0%), 정보통신대학(4.3%), 경영대학(3.8%) 등의 학생 순으로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대학원(7.5%), 학부 4, 5학년(7.2%), 학부 3학년(6.4%), 학부 2학년(3.1%), 학부 1학년(0.0%) 순으로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668, p<.05$).

〈표 6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p)
		N (%)	N (%)	N (%)	
성별	남성	9 (2.5)	349 (97.5)	358 (100.0)	12.361*** (.000)
	여성	37 (8.3)	408 (91.7)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32 (4.4)	696 (95.6)	728 (100.0)	31.156*** (.000)
	양성애	5 (23.8)	16 (76.2)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4 (11.8)	30 (88.2)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5 (25.0)	15 (75.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3 (2.2)	133 (97.8)	136 (100.0)	11.840 (.222)
	정보통신대학	4 (4.3)	88 (95.7)	92 (100.0)	
	자연과학대학	4 (13.8)	25 (86.2)	29 (100.0)	
	경영대학	2 (3.8)	50 (96.2)	52 (100.0)	
	인문대학	3 (7.7)	36 (92.3)	39 (100.0)	
	사회과학대학	3 (5.0)	57 (95.0)	60 (100.0)	
	간호대학	0 (.0)	20 (100.0)	20 (100.0)	
	약학대학	0 (.0)	8 (100.0)	8 (100.0)	
	의과대학	0 (.0)	7 (100.0)	7 (100.0)	
	대학원	27 (7.5)	333 (92.5)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0 (.0)	111 (100.0)	111 (100.0)	10.668* (.031)
	학부 2학년	3 (3.1)	94 (96.9)	97 (100.0)	
	학부 3학년	7 (6.4)	103 (93.6)	110 (100.0)	
	학부 4, 5학년	9 (7.2)	116 (92.8)	125 (100.0)	
	대학원	27 (7.5)	333 (92.5)	360 (100.0)	
전체		46 (5.7)	757 (94.3)	803 (100.0)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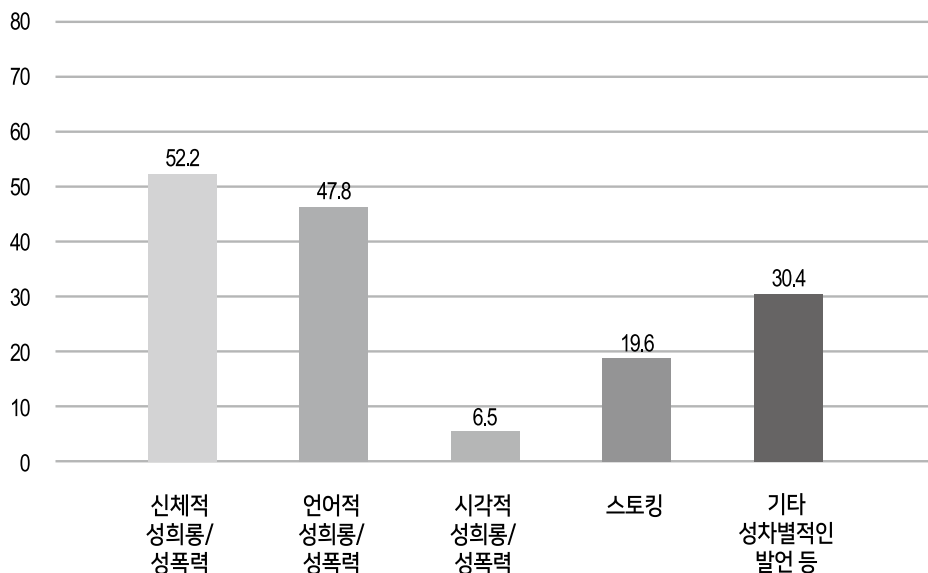
(1) 성희롱/성폭력 유형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이 2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22명(47.8%), ‘기타 성차별적 발언 등’ 14명(30.4%), ‘스토킹’ 9명(19.6%),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3명(6.5%)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성희롱/성폭력 유형

(중복응답: N=46)

구분	N	%
신체적 성희롱/성폭력	24	52.2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22	47.8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3	6.5
스토킹	9	19.6
기타 성차별적 발언 등	14	30.4



[그림 38] 성희롱/성폭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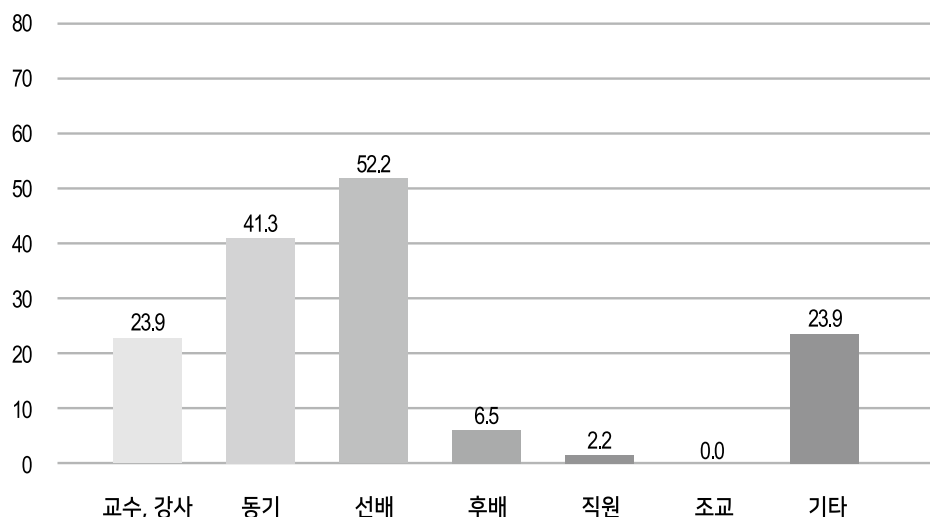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선배'가 2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기' 19명(41.3%), '교수, 강사' 11명(23.9%), '기타' 11명(23.9%), '후배' 3명(6.5%), '직원' 1명(2.2%)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모르는 사람', '애인', '아르바이트 사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8〉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중복응답: N=46)

구분	N	%
교수, 강사	11	23.9
동기	19	41.3
선배	24	52.2
후배	3	6.5
직원	1	2.2
조교	0	.0
기타	11	23.9



[그림 39]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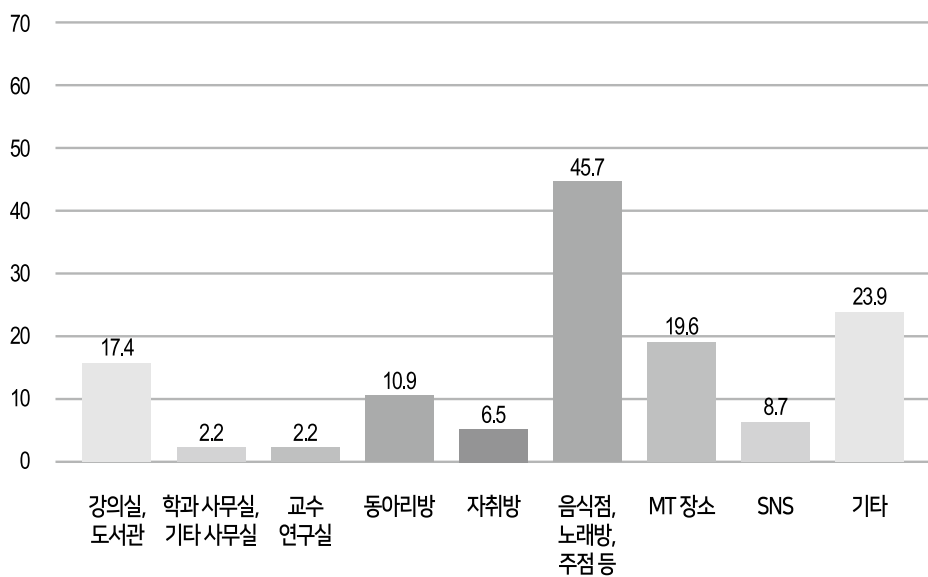
(3) 성희롱/성폭력 장소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장소를 살펴본 결과,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이 21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1명(23.9%), 'MT 장소' 9명(19.6%), '강의실, 도서관' 8명(17.4%), 'SNS' 4명(8.7%), '동아리방' 5명(10.9%), '자취방' 3명(6.5%), '학과사무실, 기타 사무실' 1명(2.2%), '교수연구실' 1명(2.2%)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응답으로 아르바이트 장소, 길거리, 친구 집 등이 있었다.

〈표 69〉 성희롱/성폭력 장소

(중복응답: N=46)

구분	N	%
강의실, 도서관	8	17.4
학과사무실, 기타 사무실	1	2.2
교수연구실	1	2.2
동아리방	5	10.9
자취방	3	6.5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	21	45.7
MT 장소	9	19.6
SNS	4	8.7
기타	11	23.9



[그림 40] 성희롱/성폭력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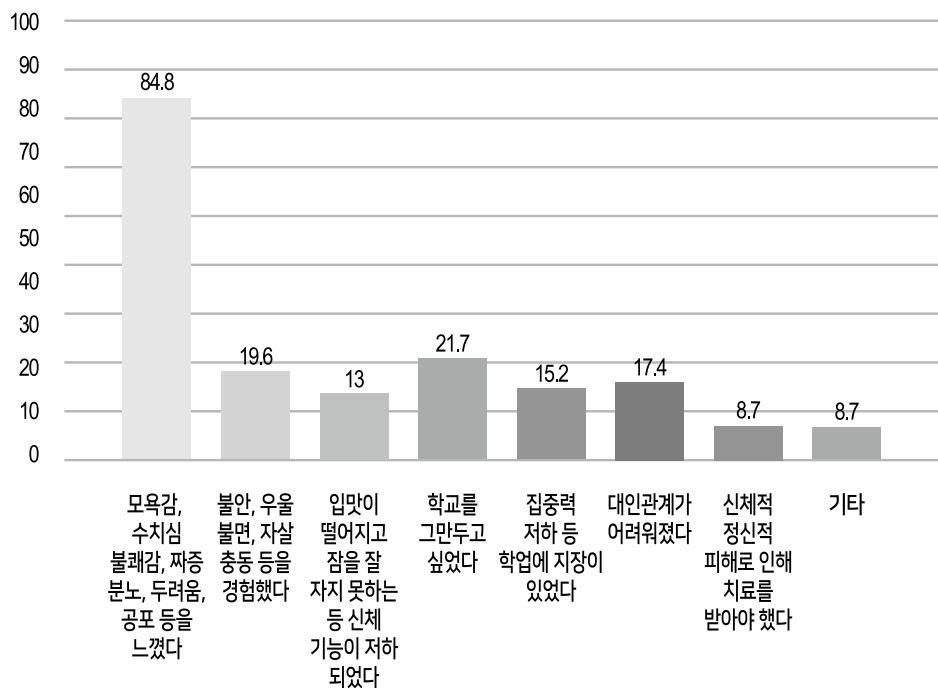
(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는 응답이 39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10명(21.7%),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9명(19.6%),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 8명(17.4%), ‘집중력 저하 등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 7명(15.2%),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6명(13.0%),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4명(8.7%), ‘기타’ 4명(8.7%)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70〉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

(중복응답: N=46)

구분	N	%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39	84.8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9	19.6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6	13.0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10	21.7
집중력 저하 등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	7	15.2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	8	17.4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4	8.7
기타	4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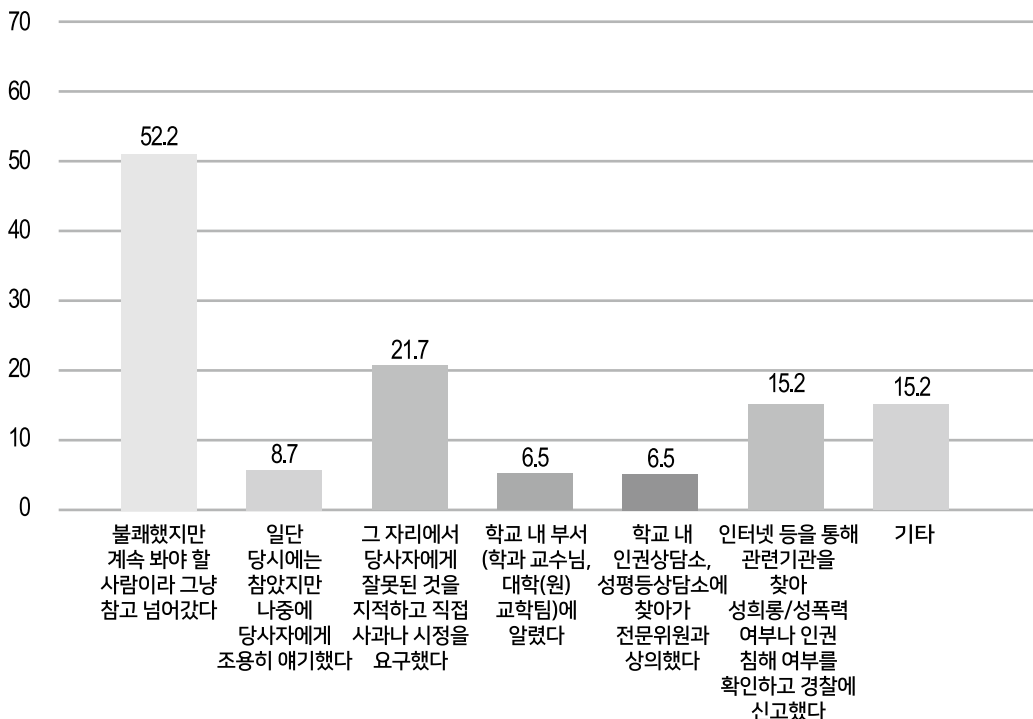
[그림 4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

(5)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피해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2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직접 사과나 시정을 요구했다’ 10명(21.7%),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찾아 성희롱/성폭력 여부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7명(15.2%), ‘기타’ 7명(15.2%), ‘일단 당시에는 참았지만 나중에 당사자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4명(8.7%), ‘학교 내 부서(학과 교수님, 대학(원)교학팀)에 알렸다’ 3명(6.5%), ‘학교 내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 전문위원과 상의했다’ 3명(6.5%)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7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중복응답: N=46)	
구분		N	%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 시 대처 방법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다	24	52.2
	일단 당시에는 참았지만 나중에 당사자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4	8.7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직접 사과나 시정을 요구했다	10	21.7
	학교 내 부서(학과 교수님, 대학(원)교학팀)에 알렸다	3	6.5
	학교 내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 전문위원과 상의했다	3	6.5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기관을 찾아 성희롱/성폭력 여부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7	15.2
	기타	7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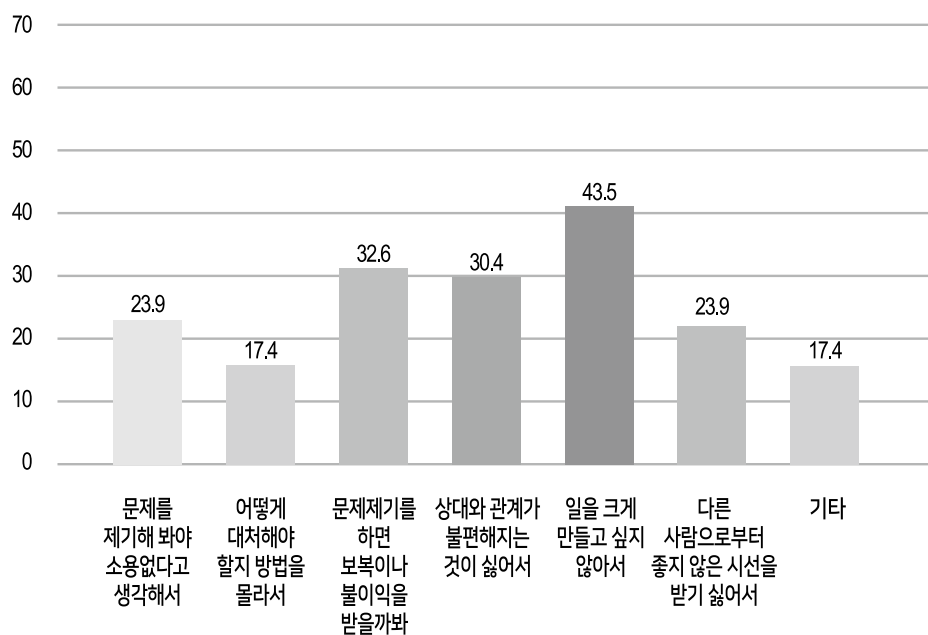
[그림 42]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시 대처 방법

(6)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15명(32.6%), ‘상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14명(30.4%),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1명(23.9%), ‘다른 사람들로 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싫어서’ 11명(23.9%),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8명(17.4%), 기타 8명(17.4%)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72〉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중복응답: N=46)	
구분		N	%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1	23.9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8	17.4
	문제 제기를 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15	32.6
	상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14	30.4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20	43.5
	다른 사람들로 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싫어서	11	23.9
	기타	8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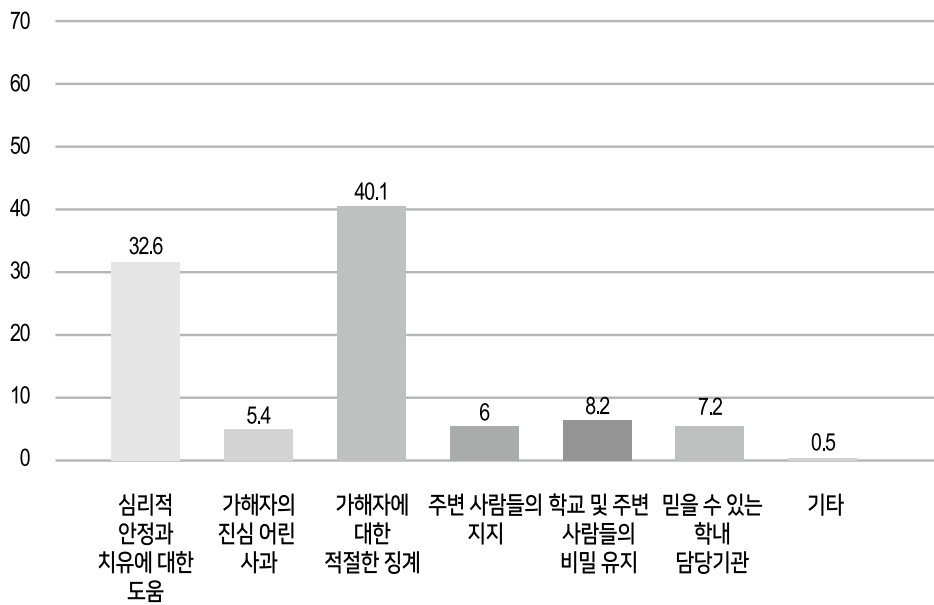
[그림 43]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22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 262명(32.6%), ‘학교 및 주변 사람들의 비밀 유지’ 66명(8.2%), ‘주변 사람들의 지지’ 48명(6.0%),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43명(5.4%), ‘믿을 수 있는 학내 담당기관’ 58명(7.2%), ‘기타’ 4명(0.5%)으로 확인되었다.

〈표 7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N	%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	262	32.6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43	5.4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322	40.1
주변 사람들의 지지	48	6.0
학교 및 주변 사람들의 비밀 유지	66	8.2
믿을 수 있는 학내 담당기관	58	7.2
기타	4	.5
합계	803	100.0



[그림 4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표 7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주변 사람들의 지지	학교 및 주변 사람들의 비밀 유지	믿을 수 있는 학내 담당기관	기타	합계	χ^2 (p)
성별	남성	136 (38.0)	21 (5.9)	114 (31.8)	24 (6.7)	28 (7.8)	31 (8.7)	4 (1.1)	358 (100.0)	24.499*** (.000)
	여성	126 (28.3)	22 (4.9)	208 (46.7)	24 (5.4)	38 (8.5)	27 (6.1)	0 (.0)	445 (100.0)	
성적 지향	이성애	246 (33.8)	36 (4.9)	289 (39.7)	39 (5.4)	60 (8.2)	54 (7.4)	4 (.5)	728 (100.0)	29.290* (.045)
	양성애	4 (19.0)	0 (.0)	13 (61.9)	1 (4.8)	2 (9.5)	1 (4.8)	0 (.0)	21 (100.0)	
	아직 잘 모르겠음	5 (14.7)	5 (14.7)	15 (44.1)	4 (11.8)	4 (11.8)	1 (2.9)	0 (.0)	34 (100.0)	
	동성애 등 기타	7 (35.0)	2 (10.0)	5 (25.0)	4 (20.0)	0 (.0)	2 (10.0)	0 (.0)	20 (100.0)	
소속	공과대학	47 (34.6)	7 (5.1)	49 (36.0)	8 (5.9)	11 (8.1)	13 (9.6)	1 (.7)	136 (100.0)	54.504 (.455)
	정보통신대학	25 (27.2)	5 (5.4)	40 (43.5)	7 (7.6)	10 (10.9)	5 (5.4)	0 (.0)	92 (100.0)	
	자연과학대학	10 (34.5)	1 (3.4)	13 (44.8)	0 (.0)	2 (6.9)	3 (10.3)	0 (.0)	29 (100.0)	
	경영대학	19 (36.5)	1 (1.9)	24 (46.2)	2 (3.8)	3 (5.8)	3 (5.8)	0 (.0)	52 (100.0)	
	인문대학	10 (25.6)	2 (5.1)	19 (48.7)	3 (7.7)	4 (10.3)	0 (.0)	1 (2.6)	39 (100.0)	
	사회과학대학	20 (33.3)	0 (.0)	32 (53.3)	2 (3.3)	2 (3.3)	3 (5.0)	1 (1.7)	60 (100.0)	
	간호대학	4 (20.0)	2 (10.0)	13 (65.0)	0 (.0)	1 (5.0)	0 (.0)	0 (.0)	20 (100.0)	
	약학대학	1 (12.5)	0 (.0)	3 (37.5)	2 (25.0)	2 (25.0)	0 (.0)	0 (.0)	8 (100.0)	
	의과대학	2 (28.6)	1 (14.3)	2 (28.6)	1 (14.3)	0 (.0)	1 (14.3)	0 (.0)	7 (100.0)	
	대학원	124 (34.4)	24 (6.7)	127 (35.3)	23 (6.4)	31 (8.6)	30 (8.3)	1 (.3)	360 (100.0)	
학년	학부 1학년	36 (32.4)	7 (6.3)	41 (36.9)	8 (7.2)	13 (11.7)	6 (5.4)	0 (.0)	111 (100.0)	35.571 (.748)
	학부 2학년	30 (30.9)	4 (4.1)	48 (49.5)	1 (1.0)	8 (8.2)	6 (6.2)	0 (.0)	97 (100.0)	
	학부 3학년	30 (27.3)	5 (4.5)	49 (44.5)	8 (7.3)	8 (7.3)	9 (8.2)	1 (.9)	110 (100.0)	
	학부 4, 5학년	42 (33.6)	3 (2.4)	57 (45.6)	8 (6.4)	6 (4.8)	7 (5.6)	2 (1.6)	125 (100.0)	
	대학원	124 (34.4)	24 (6.7)	127 (35.3)	23 (6.4)	31 (8.6)	30 (8.3)	1 (.3)	360 (100.0)	
전체	262 (32.6)	43 (5.4)	322 (40.1)	48 (6.0)	66 (8.2)	58 (7.2)	4 (.5)	803 (100.0)		

* $p < .05$, *** $p < .001$

성별로는 남성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38.0%)이 여성(28.3%)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46.7%)이 남성(3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24.499, p<.001$).

성적 지향별로는 양성애(61.9%) 학생들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고, 아직 잘 모르겠음(44.1%), 이성애(39.7%) 학생들 역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동성애 등 기타 성적 지향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25.0%)보다는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35.0%)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29.290, p<.001$).

소속별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간호대학(65.0%), 사회과학대학(53.3%), 인문대학(48.7%), 경영대학(46.2%), 자연과학대학(44.8%), 정보통신대학(43.5%), 공과대학(36.0%), 대학원(35.3%) 순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응답자의 소속별로 모든 학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제3장

요약 및 제언



제3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내 재학생의 인권/성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교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학 문화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아주대학교 재학생 803명(학부생 443명, 대학원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개요

본 연구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재학생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 358명(44.6%), ‘여학생’ 445명(55.4%)으로 구성되었고, 개인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728명(90.7%), ‘동성애’ 5명(0.6%), ‘양성애’ 21명(2.6%), ‘범성애’ 8명(1.0%), ‘무성애’ 4명(0.5%), ‘다성애’ 2명(0.2%), ‘아직 잘 모르겠음’ 34명(4.2%), ‘기타’ 1명(0.1%) 이었다. 소속은 학부생이 443명(55.2%), 대학원생이 360명(44.8%)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원’이 200명(24.9%), ‘공과대학’ 136명(16.9%), ‘정보통신대학’ 92명(11.5%), ‘교육대학원’ 79명(9.8%), ‘사회과학대학’ 60명(7.5%), ‘경영대학’ 52명(6.5%), ‘인문대학’ 39명(4.9%), ‘자연과학대학’ 29명(3.6%), ‘간호대학’ 20명(2.5%)이었다.

2)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488명(60.8%)은 모두 알고 있었고, 68명(8.5%)은 인권상담소만, 43명(5.4%)은 성평등상담소만 알고 있었으며, 204명(25.4%)은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 인지 경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82명(63.9%), ‘팸플릿 및 홍보물’ 169명(28.3%), ‘주관 교육 및 행사’ 100명(16.7%), ‘친구, 선후배 등’ 41명(6.9%), ‘기타’ 25명(4.2%) 순이었다.

교내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에 대해 546명(68.0%)이 알고 있었고, 257명(32.0%)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는 472명(58.8%)이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331명(41.2%)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591명(73.6%)은 이용 의향이 있었고, 212명(26.4%)은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인권센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98명(46.2%), ‘피해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69명(32.5%),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걱정돼서’ 66명(31.1%), ‘용기가 나지 않아서’ 49명(23.1%), ‘기타’ 20명(9.4%)으로 나타났다.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543명(67.6%), ‘인권 관련 정보취득’ 163명(20.3%), ‘인권 관련 활동 참여 기회’ 84명(10.5%), ‘기타’ 13명(1.6%) 순으로,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이 376명(46.8%),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144명(17.9%),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250명(31.1%), ‘기타’ 33명(4.1%) 순으로 나타나 공통되게 침해나 피해 여부 확인 및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권감수성 및 인식

소수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는 평균 4.35점(표준편차 0.85),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우대조치는 평균 3.97(표준편차 0.99)점이었으나,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평균 3.19(표준편차 1.30)점,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평균 2.92(표준편차 1.20)점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우대조치의 경우 긍정 응답이 각 88.3%, 76.5%이었음에 반해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부정 응답이 35.5%, 긍정 응답이 31.1%으로 부정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성역할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집단에서의 리더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 시 주도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녀 혼성 집단에서 누가 리더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644명(80.2%)은 ‘남녀 누구든 상관없다’거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등 고정 관념이 없는 기타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107명(13.3%)은 ‘남성’, 52명(6.5%)은 ‘여성’이 리더가 되어야한다는 응답을 보여, 19.8%는 고정 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608명(75.8%)은 ‘남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등의 고정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기타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140명(17.4%)은 ‘남성’이, 55명(6.8%)은 ‘여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24.2%는 고정 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12개 문항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4.36(표준편차 0.45)점으로 대부분 성폭력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인권침해 경험의 실태

학교생활 중 인권 침해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신체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험 163명(20.3%), 자유권을 침해받은 경험 205명(25.5%),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험 162명(20.2%),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침해받은 경험 171명(21.3%), 노동권 침해를 받은 경험 65명(8.1%)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난 1년 동안 위와 같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217명(2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8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60명(27.6%),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13명(6.0%), ‘공공기관(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명(8.8%),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6명(2.8%), ‘기타’ 11명(5.1%)으로 나타났으며, ‘학내 기구(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은 16명(7.4%)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나 불이익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162명(84.4%)의 대부분 학생들이 모욕, 분노, 울분 등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재산/금전상의 손해’ 28명(14.6%), ‘사회적 명예 실추’ 21명(10.9%), ‘기타’ 10명(5.2%), ‘신체적 상해’ 7명(3.6%) 등 순으로 피해나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성희롱/성폭력 경험의 실태

가)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

대학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살펴본 결과, ‘성적인 농담(음담패설)이나 놀림’이 618명(7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도/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612명(76.2%), ‘불법촬영’ 599명(74.6%), ‘강제적 성추행 혹은 강간(미수) 등’ 576명(71.7%),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 560명(69.7%), ‘수업시간(온라인 수업 포함) 중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표, 발언’ 527명(65.6%),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만남 강요’ 510명(63.5%), ‘SNS에서 음란물 공유’ 493명(61.4%),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464명(57.8%), ‘복장/용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 424명(52.8%), ‘신체를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381명(47.4%), ‘기타’ 10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대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응답이 139명(40.6%),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나서서 것이 주저되었다’ 100명(29.2%),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01명(29.5%),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고 제지하였다’ 75명(21.9%),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또는 잘 아는 사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7명(19.6%), ‘선배, 학생회,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39명(11.4%),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 33명(9.6%), ‘기타’ 8명(2.3%)이었다.

다)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대처 방법

향후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374명(49.1%),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겠다’ 315명(41.4%),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제지하겠다’ 203명(26.7%), ‘선배나 학생회, 교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하겠다’ 140명(18.4%), ‘피해자를 비난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겠다’ 111명(14.6%), ‘가만히 있겠다’ 59명(7.8%), ‘기타’ 8명(1.1%) 순이었다.

라)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6명으로 응답자의 5.7%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8.3%, 남성의 2.5%였다.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이 24명(52.2%),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22명(47.8%), ‘기타 성차별적 발언 등’ 14명(30.4%), ‘스토킹’ 9명(19.6%),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3명(6.5%)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선배’가 2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기’ 19명(41.3%), ‘교수, 강사’ 11명(23.9%), ‘기타’ 11명(23.9%), ‘후배’ 3명(6.5%), ‘직원’ 1명(2.2%)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모르는 사람’, ‘애인’, ‘아르바이트 사장’ 등이 있었다. 성희롱/성폭력 장소를 살펴본 결과,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이 21명(45.7%), ‘기타’ 11명(23.9%), ‘MT 장소’ 9명(19.6%), ‘강의실, 도서관’ 8명(17.4%), ‘SNS’ 4명(8.7%), ‘동아리방’ 5명(10.9%), ‘자취방’ 3명(6.5%), ‘학과사무실, 기타 사무실’ 1명(2.2%), ‘교수연구실’ 1명(2.2%)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는 응답이 39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10명(21.7%),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9명(19.6%),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 8명(17.4%), ‘집중력 저하 등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 7명(15.2%),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6명(13.0%),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4명(8.7%), ‘기타’ 4명(8.7%)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피해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2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직접 사과나 시정을 요구했다’ 10명(21.7%),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찾아 성희롱/성폭력 여부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7명(15.2%), ‘기타’ 7명(15.2%), ‘일단 당시에는 참았지만 나중에 당사자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4명(8.7%), ‘학교 내 부서(학과 교수님, 대학(원)교학팀)에 알렸다’ 3명(6.5%), ‘학교 내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 전문위원과 상의했다’ 3명(6.5%)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15명(32.6%), ‘상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14명(30.4%),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1명(23.9%),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싫어서’ 11명(23.9%),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8명(17.4%), 기타’ 8명(17.4%) 등으로 나타났다.

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22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 262명(32.6%), ‘학교 및 주변 사람들의 비밀 유지’ 66명(8.2%), ‘주변 사람들의 지지’ 48명(6.0%),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43명(5.4%), ‘믿을 수 있는 학내 담당기관’ 58명(7.2%), ‘기타’ 4명(0.5%)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제언

「2022년 아주대학교 재학생 인권/성익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주대학교 인권센터를 이용하는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인권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중 교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의 설치 유무에 대해 두 상담소 모두 알고 있거나 인권 혹은 성평등상담소 중 한 곳이라도 알고 있는 학생은 74.7%였고,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73.6%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26.4%의 학생들은 ‘인권센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혹은 ‘피해 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인권센터의 이용 의사가 있는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 인권 침해나 성폭력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모르거나, 학생들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에 인권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센터 산하에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49.1%의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공용 공간에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센터 이용 안내 리플릿 등을 각 건물 내 로비에 비치하는 등 인권센터 홍보물의 노출도를 높인다면 학생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센터는 교내 독립기구로서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는 전문위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둘째, 전문위원들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되고, 셋째, 사건의 처리 과정은 피해자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한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인권·성평등의식 교육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에서 제공받고 싶은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상담소의 경우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67.6%), 성평등상담소의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46.8%)과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34.1), ‘연인 및 데이터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17.9%) 등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38%는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59%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그 중 21%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9.6%만이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29.5%),’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나서는 것이 주저되었다’(29.2%),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또는 잘 아는 사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19.6%)고 응답한 것을 보면, 학생들은 본인의 경험이 인권침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조사 응답자의 소속별로는 자연과학대학(82.8%), 약학대학(75.0%), 간호대학(70.0%), 경영대학(69.2%), 대학원(68.6%)의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관련 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의과대학(28.6%)과 공과대학(26.5%)의 경우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을 인문대학(23.1%), 사회과학대학(23.3%)의 경우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관련 내용의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학생의 소속별, 학년별로 맞춤형 예방교육 및 특강의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대응에 대한 상담과 특강의 마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대학 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가해자는 ‘선배’(52.2%), ‘동기’(41.3%), ‘교수, 강사’(23.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재구성된 사례 등을 예방교육 자료로 제작·배포하여 수업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및 성폭력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정책 수립

-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에 적극적인 홍보와 비밀(익명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접근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정기적인 관련 사례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따라서 인권센터는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를 확인하고 재학생의 소속별, 학년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특강 주제 등을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에서 인권과 성평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 부 록



재학생 인권/성익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의 인권 및 성평등에 관한 의식과 태도,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한 이해, 교내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설문은 우리 대학의 인권 및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센터의 정책 및 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실시되고 통계처리 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 설문에 응하시는 경우 본교 인권센터의 정책 및 연구를 위한 연구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조사 기간 내에 링크를 통해 재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하신 답변 수정이 가능합니다.
- *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031-219-1733), 성평등상담소 (031-219-17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신학생회관 4층 417호 humanrights@ajou.ac.kr / 성평등상담소 418호 help@ajou.ac.kr)

1.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인권상담소만 알고 있다
- 성평등상담소만 알고 있다
- 해당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2.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학교 홈페이지
- 팸플릿 및 홍보물
- 주관 교육 및 행사
- 친구, 선후배 등
- 기타:

3. 현재 아주대 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르고 있다

4. 지난 1년 동안(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피해가 있을 시 교내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 예 (7번 문항으로)
- 아니오 (6번 문항으로)

6.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피해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걱정돼서
- 용기가 나지 않아서
- 인권센터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 기타:

7.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대응
- 인권관련 정보취득
- 인권관련 활동 참여기회
- 기타:

7-1.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8.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거나 제공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 연인 및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
- 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및 대응
- 기타:

8-1.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조사

다음은 인권 및 성역할과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은 문항들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항이니 본인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적극적 우대 조치란 과거에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소수 집단이나 불리한 집단에 대하여 할당제나 가산 점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상 차원의 혜택을 주려는 제도나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에 다음과 같은 우대 조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세요.

9.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0.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1.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2.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3. A는 시험시간 중 B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이에 A는 B의 신상정보 및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내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 B의 행위는 널리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므로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다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 B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므로 A의 행위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 모르겠다

14. 동아리 후배 B 등이 동아리 규칙을 어기고 동아리방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된 동아리 대표 A는 B 등 일행을 불러내어 동아리 규칙에 따라 단체 기합을 주었다. *

- 동아리 내에서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아리 자율에 맡길 사항이므로, A가 B등에 대하여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
- 동아리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기합과 같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제재이다
- 모르겠다

15. A교수는 학기말 성적 공고기간 중 자신의 연구실 앞 게시판에 담당과목의 채점표를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경우 수강생의 소속학과 및 이름은 비공개하고, 학번만을 공개하였으며, 각 항목별 (중간시험 점수, 기말시험 점수, 과제점수, 출석점수) 점수가 공지되었다. *

- A의 행위는 수강생이 자신의 성적과 타 수강생의 성적을 비교하여 자신이 취득하게될 학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강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행위이다
- 비록 소속학과 및 이름이 비공개되었다 할지라도 학번의 공개만으로도 타인의 성적등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원치않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다
- 모르겠다

16. A교수는 자기전공분야의 유명인사인 B를 본교 특강의 연사로 초청하였다. A교수는 자신의 개설 과목 수강생들에게 해당과목은 휴강을 하는 대신 이 특강에 참석하는 것으로 수업 및 출석을 대신 하기로 하였다. *

- B연사의 경우 해당교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특강이 수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 할수 없으므로, A의 행위는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는 행위이다
- 해당과목 수강생들에게 있어서 이 특강은 시간 및 일정에 있어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 특강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원치않는 행사에의 동원 또는 참석 강요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 모르겠다

17. 학부과정 학사운영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진학이나 취업 등 경쟁심화에 따라 학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학점관리에만 소진된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하여 재수강 횟수 제한이나 재수강시 학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추가 등록금 부담 및 졸업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등 충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재수강하여 높은 학점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재수강이라는 이유로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 모르겠다

18. 남녀 혼성 집단에서 리더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성
- 여성
- 기타:

19.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성
- 여성
- 기타:

20. 나는 사회 구성원의 성적 지향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1. 데이트 중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2.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3. SNS 단체대화방에서의 성적인 농담, 타인의 외모 평가 등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4.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 구별 없이 일어난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5.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6.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7. 성폭력은 대부분 힘과 권력의 상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8. 남자는 성폭력을 당할 수 없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9.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0. 성폭력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옷차림에도 원인이 있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1.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2. 학교 생활 중 다음의 신체 안전 및 인격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구타 또는 폭행 및 위협을 받은 경험
- 자신에 관한 소문이 원치않게 다수에게 유포된 경험
- 폭언, 욕설, 혐오적 표현을 들은 경험
- 집단적 따돌림, 배제 및 소외 경험
- 없음

33. 학교 생활 중 다음의 자유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원치 않는 행사동원 및 모임 참석 강요
- 동아리 또는 소모임 가입 강요 또는 간섭과 제약
-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개
- 없음

34. 학교 생활 중 다음의 평등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신체 또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
-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
- 소속 또는 출신학교, 편입학을 이유로 한 차별
- 없음

35. 학교 생활 중 다음의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충실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 원치 않는 수업 수강 또는 특정 수업 수강 불허
- 논문, 졸업작품, 각종 추천 등을 이유로 대가 제공 강요
- 타인인 논문작성, 연구 또는 과제 대행 강요
- 없음

36. 학교 생활 중 다음의 노동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적절한 보수 미지급
- 부적절한 업무 지시, 비윤리적 행위 강요
- 없음

37. 귀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관심없다

38.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중복응답 가능) *

-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내 기구(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 공공기관(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경험 없음 (41번으로 이동)
- 기타:

39.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어서
-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기타:

40.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 재산/금전상의 손해를 보았다
-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다
-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모욕, 분노, 울분 등)
- 기타:

41. 귀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아래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한다
- 차별금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 등 제도를 마련한다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게 한다
-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기타:

42. 다음은 대학 캠퍼스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다양한 사안들입니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 성적인 농담(음담패설)이나 놀림
- 신체를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 수업시간(온라인 수업 포함) 중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표, 발언
- 지도/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안마, 포옹, 입맞춤, 볼,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 강제적 성추행 혹은 강간(미수) 등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만남 강요
-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
- 불법촬영(신체부위 촬영)
- 복장/용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
- SNS에서 음란물 공유
- 기타:

43. 위와 같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또는 잘 아는 사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나서서 것이 주저되었다
-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
-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고 제지하였다
- 선배, 학생회,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
-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
- 기타:

44. 위와 같은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가만히 있겠다
-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겠다
-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제지하겠다
- 피해자를 비난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겠다
- 선배나 학생회, 교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하겠다
- 인권센터 및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하겠다
- 기타:

45. 대학 입학 이후 현재까지 당신은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46번으로)
- 아니오 (52번으로)

46. 당신은 어떠한 유형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안마, 포옹, 입맞춤, 볼,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접촉, 강간 등)
-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성적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
-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음란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 및 전송)
- 스토킹(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구애 전화, 미행 등)
- 기타 성차별적 발언 등

47.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교수, 강사
- 동기
- 선배
- 후배
- 직원
- 조교
- 기타:

48.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강의실, 도서관
- 학과 사무실, 기타 사무실
- 교수연구실

- 동아리방
- 자취방
-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
- MT 장소
- SNS
- 기타:

49.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 집중력 저하 등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
-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
-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 기타:

50.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대처방법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다
- 일단 당시에는 참았지만 나중에 당사자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직접 사과나 시정을 요구했다
- 학교 내 부서(학과 교수님, 대학(원)교학팀)에 알렸다
- 학교 내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 전문위원과 상의했다
-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기관을 찾아 성희롱/성폭력 여부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 신고했다
- 기타:

51. 귀하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문제 제기를 하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성적 불이익, 진로 제약 등)
- 상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싫어서
- 기타:

52. 위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대한 도움
-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 주변 사람들의 지지
- 학교 및 주변 사람들의 비밀 유지
- 믿을 수 있는 학내 담당기관
- 기타:

응답하시는 인적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53. 당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표시해 주십시오 *

- 남성
- 여성
- 중성
- 기타:

54. 당신의 성적 지향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이성애
- 동성애
- 양성애
- 범성애
- 무성애
- 다성애
- 아직 잘 모르겠다
- 기타:

55. 당신의 소속에 표시해 주십시오 *

- 공과대학
- 정보통신대학
- 자연과학대학
- 경영대학
-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의과대학
- 일반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국제대학원
- 공학대학원
- 경영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 교육대학원
- 정보통신대학원
- IT 융합대학원
- 교통.ITS 대학원
- 보건대학원
- 임상치의학대학원
-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 기타

56. 당신의 학부 학년/대학원 과정에 표시해 주십시오 *

- 학부 1학년
- 학부 2학년
- 학부 3학년
- 학부 4학년
- 학부 5학년
- 학부 6학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기타

57. 휴대폰 번호- 당첨 시 기념품 제공용으로만 안전하게 사용 후 일괄 삭제됩니다.

2022년 아주대학교 재학생 인권/성익식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인 쇄 일 : 2022년 8월

발 행 일 : 2022년 8월

발 행 처 :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 성평등상담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층

- 인권상담소 / 417호 T. 031-219-1733

<http://humanrights.ajou.ac.kr>

- 성평등상담소 / 418호 T. 031-219-1745, 1739

<http://help.ajou.ac.kr>

